

2 승렬샘과  
0 함께하는  
2 수능특강  
2 완전정복



독서



**승렬쌤과 함께하는**  
**2022학년도**  
**수능특강 완전정복**  
**〈독서〉**

## 전하는 말

안녕하세요, 조승렬입니다. 본 책은 『2022학년도 수능특강 독서』에 수록된 지문들과 유사한 주제를 가진 문제들을 엮은 책입니다. 연계 교재에서의 연계율이 줄어들고, 직접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인 금년도 수능 및 모의고사에서는 비슷한 주제, 비슷한 유형을 푸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본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014년~2020년, 총 7개년의 수능 연계 교재(수능특강, 수능완성)과 기출문제(수능, 모의고사)를 분석하여 『2022학년도 수능특강 독서』에 수록된 지문들과 유사한 주제를 가진 지문들을 편집한 것입니다. 기출을 돌리는 것이 정형화된 국어 공부 방법에서는 조금은 벗어난 책이지만,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본 책을 풀기 전에는 우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2022학년도 수능특강 독서』를 다 풀 것.
2. 『2022학년도 수능특강 독서』에 수록된 지문을 분석할 것.
3. 타이머를 준비할 것.
4. 샤프와 지우개를 준비할 것.

위의 네 가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학생은 본 책을 바로 덮어주시고 위 사항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본 책을 푸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부 교과서 개념학습]을 풀기.
2. [2부 적용학습]의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은 한 지문씩 번갈아 가면서 풀기.  
ex) 인문예술01 → 사회문화01 → 과학기술01 → 인문예술02 → ……
3. [2부 적용학습]의 <주제통합>을 풀기.
4. [3부 실전학습] 풀기.

또한 각 지문을 풀기 전에는 타이머로 시간을 반드시 재시길 바랍니다. 한 지문을 끝내면 소요된 시간을 반드시 적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큰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조승렬이었습니다.

## 목차

### [1부 교과서 개념학습]

- 1-1. 엘리야데의 신화론 ... 6
- 1-2. 시적 리얼리즘 영화와 누벨바그 영화 운동 ... 9
- 1-3. 유클리드 기하학과 택시 기하학 ... 14
- 2-1. 바코드 ... 20
- 2-2. 사후 가정 사고 ... 23
- 2-3.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 28
- 2-4. 보링거의 추상 충동과 감정 이입 충동 ... 32
- 2-5. 진품과 위조품 ... 36
- 3-1. 파슨스의 기능적 필수 요건과 종교 조직의 유지 ... 40
- 3-2.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 ... 43
- 3-3. 조광 유리 ... 48
- 4-1. 가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 ... 52
- 4-2. 선거구의 종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 55

### [2부 적용학습]

#### <인문예술>

- 01.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 ... 62
- 02. 정의에 대한 철학적 담론 ... 65
- 03. 포토리얼리즘 ... 70
- 04. 부와 행복의 관계 ... 78
- 05. 사전 학파론자들의 토지 개혁 ... 81
- 06. 영화 음향의 다양한 차원 ... 86
- 07. 조선 후기 서양 과학의 수용과 주자학적 사유의 변화 ... 90
- 08. 진보 사관의 형성과 변화 과정 ... 94
- 09. 존재론적 환원주의 ... 98
- 10. 고대 그리스 건축의 주범 ... 101
- 11. 니체의 언어관과 진리 ... 106
- 12. '음악적 시간'의 발전 과정 ... 112
- 13. 유럽의 대서양 진출과 그 영향 ... 115

#### <사회문화>

- 01. 위험 분석 모델 ... 122
- 02. 지리적 집중 모형 ... 126
- 03. 행정 관료의 책임성 문제 ... 129
- 04. 부가 가치세 ... 133
- 05. 국제 정치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 140
- 06. 유상 증자와 무상 증자 ... 143
- 07. 매클루언의 매체론 ... 148

- 08. 완전 경쟁 시장 ... 151
- 09. 제삼자를 위한 계약 ... 156
- 10. 지정학의 개념과 역사 ... 160
- 11. 정당 정치와 국고 보조금 ... 163
- 12. 이자율과 총수요 ... 172
- 13. 19세기 신건축 운동 ... 180

#### <과학기술>

- 01. 자기 냉각 ... 192
- 02. 바이러스병 진단을 위한 PCR ... 195
- 03. 소독약의 화학적 원리 ... 200
- 04. 민코프스키의 4차원 시공간과 세계선 ... 203
- 05. 프라이온 ... 207
- 06. 그래프와 최소 신장 트리 ... 209
- 07. 빛 덧의 원리와 활용 ... 218
- 08. 자율 주행 자동차와 라이다 센서 ... 222
- 09. 기압의 영향과 일기도 ... 229
- 10. 비행기의 강하와 착륙 ... 238
- 11. 단일벽 탄소 나노 튜브 ... 246
- 12. 튜링의 반응-확산 모델 ... 249
- 13. 자동차 변속기의 원리 ... 258

#### <주제통합>

- 01. 동양에서의 천과 인의 관계 ... 270
- 02. 사고와 시스템 ... 281
- 03. 프랑스 혁명과 사회 변화 ... 290
- 04. 형벌의 정당화 이론 ... 297
- 05. 음악의 보편성과 가믈란 음악 ... 313
- 06. 활성화 확산과 아이콘 ... 333
- 07. 리벳의 자유 의지 실험 ... 342
- 08. 미학과 과학에서 닻음의 의미 ... 350
- 09. 생물 계통수와 몬테리우스 형식학 ... 368
- 10. 인간과 기술의 관계 ... 376
- 11. 뉴턴주의와 쿨롱의 법칙 ... 383
- 12. 인간이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 ... 409
- 13. 대중과 대중문화 ... 419

### [3부 실전학습]

- 01. 국제 정치의 성립 과정 ... 428
- 02. 수소를 얻는 방법 ... 436
- 03. 포스트휴머니즘과 하곡학 ... 450
- 04. 알튀세르의 호명 테제 ... 462
- 05. 다수결의 진리 가능성에 대한 이론 ... 476
- 06. 화학적 방제와 생물학적 방제 ... 480



# 1부 교과서 개념학습

- 1-1. 엘리아데의 신화론
- 1-2. 시적 리얼리즘 영화와 누벨바그 영화 운동
- 1-3. 유클리드 기하학과 택시 기하학
- 2-1. 바코드
- 2-2. 사후 가정 사고
- 2-3.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 2-4. 보링거의 추상 총동과 감정 이입 총동
- 2-5. 진품과 위조품
- 3-1. 파슨스의 기능적 필수 요건과 종교 조직의 유지
- 3-2.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
- 3-3. 조광 유리
- 4-1. 가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
- 4-2. 선거구의 종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 1부) 1-1. 엘리아데의 신화론

### [2018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루마니아 출신의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아리안 문화에 대한 신비화 전통을 계승한 신화학자이다. 엘리아데가 살았던 20세기 초의 유럽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를 추구하던 시대였다. 하지만 엘리아데가 실제 목도한 것은 전체주의와 그것이 초래한 1, 2차 세계 대전의 비합리적인 폭력과 그로인한 인간의 존엄성 상실이었다. 엘리아데는 이와 같은 타락과 폭력은 신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삶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인간의 삶에서 신성(神性)이 제거되면서 인간은 존재의 존엄함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엘리아데는 인간의 존엄함을 회복하는 힘으로 신화적이고 원초적인 세계를 다시 주목하게 되었다.

엘리아데는 그리스 철학에서 신화를 해석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들이 합리성과 역사에 대립되는 의미로 신화를 해석하면서 신화를 '실재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 것과 달리, 엘리아데는 고대인들이 그랬듯이 신화를 '참된 이야기', '신성하고 모범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귀중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였다. 그에게 있어 신화란 '실재하는 사실'이며, 인간 행위의 모범이 되고, 그 때문에 인간의 삶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엘리아데가 내린 신화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화는 태초의 시간, 즉 신화적 시간에 발생했던 신성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신화는 초자연적 존재의 행위를 통하여 우주와 각각의 사물들, 인간 행동, 그리고 제도 등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역사적 시간 속의 인간 존재는 이와 같은 신화적 사건의 결과이다. 따라서 고대 사회의 인간은 신화적 사건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것을 주기적으로 재연(再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일회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현대인의 인식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고대 사회의 인간은 '처음에' 일어났던 일을 '의례' 혹은 '제식'의 힘을 통해 반복할 수 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화를 재연, 기억함으로써 사물의 기원의 비밀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의례 행위를 통해 신화를 살려냄으로써 세속적이고 연대기적인 시간, 즉 역사적 시간에서 벗어나 원초적이고 무한히 회복 가능한 신성한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엘리아데

는 현대인들도 신화에 대해 고대 사회의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엘리아데는 '성(聖)'과 '속(俗)'의 개념을 인간과 문화를 포괄할 수 있는 근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했다. 엘리아데에 의하면 인간은 '성'과 '속'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실재가 공존하는 이중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다. 모든 사물이나 인간의 행동이 자연적인,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 어떤 초월적 의미를 부여받을 때 그것은 성스러운 속성을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돌이 있다고 하자. 돌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지만 그 돌이 신화적 행위를 기념한다고 할 경우 그 돌은 거룩한 것이 된다.

인간 행동의 의미와 가치 역시 자연적, 육체적 조건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행위를 재연하고 신화적인 사건을 반복하는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 고대인들은 어떤 존재에 의해 이미 경험된 것이 아니면 그 어떤 행동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삶은 이미 이전에 행해진 것이며, 그의 삶은 타자에 의해 창시된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다. 즉 자연의 산물이나 인간에 의해 가공된 사물들은 그것들이 얼마만큼 초월적 존재에 관계하느냐에 따라 실재성을 얻게 된다. 고대 세계에서는 사냥이나 농경, 유희나 투쟁 등 의미를 지닌 모든 행위는 '성(聖)', 즉 거룩함에 참여하고 있는 제의적 행위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이 모든 행위에서 성스러움이 박탈되면서 '속(俗)'된 것이 되어 버렸다.

엘리아데는 고대인의 삶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원형적이지 않은 시간, 즉 ㉠역사적 시간에 대한 강한 거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발전을 거부하는 보수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이 초월성을 결여한 상황에 대한 거부, 다시 말해서 '속'에 대한 거부 때문에 보이는 모습이라고 보았다. 제의를 통한 신화의 재연 속에서 시간은 정지되고 인간의 삶이 갖는 혼돈이 사라지고 성스러움이 회복되면서 '시작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1.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리스 철학에서는 신화를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 ② 현대인들은 역사적 사건을 재연하고 반복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③ 엘리아데가 살았던 시대의 유럽인들은 세상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진보시키고자 하였다.
  - ④ 엘리아데는 고대인의 삶을 그대로 계승한 원주민들은 '속'된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 ⑤ 엘리아데의 신화론에서는 인간 행동의 의미와 가치는 인간이 처한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조건에 따라 부여된다고 보았다.

- ①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와 신시를 연 것은 '실재하는 사실'로 인식될 수 있겠군.
- ② 마늘과 쑥은 음식이라는 고유한 속성으로 인해 '성(聖)'스러운 대상으로 인식되겠군.
- ③ 환웅이 주관한 일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단군 신화의 내용은 의례나 제식의 힘을 통해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재연할 필요가 있겠군.
- ⑤ 오늘날 무당이 제의에서 사용하는 칼, 거울, 방울이 천부인 세 개와 연관된다면 실재성을 얻을 수 있겠군.

2. <보기>를 '엘리아데의 신화론'의 관점에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고조선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늘나라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자주 천하를 차지할 뜻을 두고, 사람 사는 세상을 탐내고 있었다. 이에 환인이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들을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이에 환인은 천부인 세 개(칼, 거울, 방울)를 환웅에게 주어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에 있는 신단수 밑에 내려와 신시를 열었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어느 날, 범 한 마리와 곰 한 마리가 환웅에게 빌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환웅은 마늘과 쑥을주며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지내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범은 이를 지키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했으나 곰은 삼칠일 동안 조심하여 웅녀라는 사람이 되었다. 이후 환웅은 웅녀와 혼인을 하게 되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단군이다. 단군은 고조선을 세우고 3,0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3. 문맥상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가 단절된 시간
- ②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존재하는 시간
- ③ 신과 인간이 공존하며 만들어 낸 시간
- ④ 인간이 경험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
- ⑤ 인간 행동에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시간

소요 시간
⋮

[정답] 1 ⑤ 2 ② 3 ①

[1] ⑤ 5문단을 보면, 엘리아데에게 있어 인간 행동의 의미와 가치는 자연적, 육체적 조건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신화적인사건을 반복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① 2문단을 보면, 그리스 철학에서는 신화를 합리성과 역사에 대립되는 의미로 신화를 해석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리스 철학에서 신화를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3문단을 보면, 고대인들이 신화적 사건을 주기적으로 재연할 대상으로 생각한 반면, 현대인들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일회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여기서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역사적 사건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③ 1문단을 보면, 20세기 초의 유럽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를 추구하는 시대라고 했고, 엘리아데는 그 시대에 나타났던 전체주의와 1, 2차 세계 대전을 목도했다고 했으므로, 엘리아데가 살았던 시대가 곧 20세기 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④ 6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고대인의 삶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역사적 시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 이는 '속'에 대한 거부 때문이라고 했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2] ② '마늘'과 '썩'은 음식이라는 그 자체의 고유한 속성만으로는 성스러움을 부여받을 수 없고, 초월적 의미를 부여받아야 성스러운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즉 '마늘'과 '썩'은 곱을 인간으로 바꾸게 만든 초월적 의미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성스러운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지, 그 자체의 속성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① 2문단을 보면, 엘리아데는 신화를 '실재하는 사실'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엘리아데의 신화론에 따르면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와 신시를 열었다는 단군 신화의 내용은 실재하는 사실로 인식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엘리아데는 신화란 우주와 각각의 사물들, 인간행동, 그리고 제도 등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는 것은 곧 그 신화를 바탕으로 이어져 온 우리민족의 제도가 그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④ 신화는 인간 행동의 모범이 되는 것이므로 고대인들은 신화적 사건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엘리아데는 현대인들도 그들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을 보면, 자연의 산물이나 인간에 의해 가공된 사물들은 그것들이 얼마만큼 초월적 존재에 관계하느냐에 따라 실재성을 얻게 된다고 했으므로, 오늘날 굿과 같은 제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칼, 거울, 방울이 단군 신화에서 환웅에게 준 천부인 세 개와 연관된다고 판단한다면, 실재성을 얻은 대상으로 인식될 것이다.

[3] ① 앞뒤의 맥락을 보면 '역사적 시간'은 원형적이지 않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 초월성을 결여한, 즉 초월적인 존재인 신과의 관계가 단절된, '속'된 시간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②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신화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원형적 시간과 단절된 것으로서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신과 인간이 공존하며 만들어 낸 시간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된 시간이므로, 이는 엘리아데가 생각하는 신화적 시간에 가깝고 역사적 시간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인간이 경험했던 사건은, 고대인에 의한 '신화적 사건의 재연'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역사적 시간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인간 행동의 의미와 가치는 신화적 사건을 반복하는 데서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1부) 1-2. 시적 리얼리즘 영화와 누벨바그 영화 운동

[2019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1930년대 프랑스 영화의 황금기를 구현한 영화들은 ㉠'시적 리얼리즘 영화'들이었다. 시적 리얼리즘 영화는 통속적인 문학 작품을 각색하여 만든 영화로 전쟁 전 유럽의 우울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주인공의 몰락으로 귀결되는 비관적인 분위기의 내러티브\*를 보여 주었다. 영화사가 많은 제작비를 동원하여 인기 있는 연극배우를 출연시켰고, 인공적이고 화려한 실내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을 중시했다. 또한 시나리오 작가, 무대 감독, 조명 전문가, 작곡가 등과 동등한 지위에서 감독이 영화 제작의 일원이자 공동 제작자로서 영화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였다.

시적 리얼리즘 영화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누벨바그 영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누벨바그'는 '새로운 물결'이라는 뜻으로 '누벨바그 영화'를 표방하는 감독들은 시적 리얼리즘 영화들이 문학 작품에 의존하여 전혀 새로움이 없고,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들이며, 기존의 영화적 관습에 고착되어 영화의 예술성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누벨바그 영화감독들의 이러한 생각은 영화 잡지 '카이에 뒤 시네마'의 발행인이었던 비평가 앙드레 바쟁이 그의 영화 비평에서 주장했던 바를 추종하는 것이었다. 누벨바그 영화는 1953년 이후 프랑스 정부가 사전 제작 지원금을 제공하여 무명의 젊고 재능 있는 감독들이 저 예산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또한 필름, 카메라, 녹음 기계 등 발달된 영화 제작 기술을 활용하여 야외 촬영과 즉흥 연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20세기 영화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누벨바그 영화는 동시대의 카뮈, 사르트르 등의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영화 제작에서 감독의 주체성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기존 영화에서 영화의 공동 제작자에 머물러 있던 감독이 자신의 상상력과 잠재력을 담아내면서 영화 제작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누벨바그 영화의 감독들은 사건 전개나 기법 면에서 감독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파격적인 면모를 보여 주었는데, 처음과 중간, 끝이 구별되지 않는 구성, 극적 동기가 없는 사건, 완결되지 않는 내러티브 등의 새로운 기법들을 활용하였다. 그들은 대중들이 선호하는 스타의 기용을 피했고,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또한 TV에서 쓰이던

경량 카메라를 사용하여 생생한 장면을 구성하였고, 스튜디오를 떠나 파리의 거리나 근교를 주된 촬영 장소로 삼았다. 편집에서도 시간적 순서를 왜곡한 편집, 급격한 장면 전환으로 서사의 연속성을 깨뜨리거나 장면을 비약시키는 점프 컷, 다큐멘터리와 픽션을 섞는 등의 실험적 편집 방식을 보여 주었다.

누벨바그 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 감독은 장뤼크 고다르로 그는 ㉢"영화는 삶 그 자체이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 의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영화의 주제 및 형식에 대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그는 「미치광이 피에로」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빠른 편집과 점프 컷을 자주 사용했고, 시적 리얼리즘 영화가 보여 주는 인과적이고 매끈한 편집을 지양했다. 그는 현장 촬영, 다큐멘터리 제작 스타일을 중시했으며 현장의 생생한 사운드의 채취와 자연광을 선호하는 등 새로운 시청각적 스타일을 보여 주었다. 또한 배우들에게 자유로운 연기를 주문하여 배우들이 대본에 없거나 대본과 다른 장면을 촬영 현장에서 즉석으로 연기하는 것을 선호했다.

고다르의 실험적 영화 기법은 관객들을 영화 감상의 능동적 주체로 이끌기 위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기존의 영화에서 관객들은 잘 편집되고 완결성 있는 영화를 보면서 현실을 대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감독의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을 주입받았다. 고다르는 실험적 기법을 통해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관객이 작품 이해에 불편을 느끼게 만들어 자신의 모든 지적 능력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영화를 감상하도록 했고 영화의 내용과 기법에 담겨 있는 감독의 의도와 영화의 예술성을 헤아려 보도록 했다.

누벨바그 영화 운동은 영화 제작의 새로운 방향성과 제작 기법의 다양화를 이끌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영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오늘날 영화를 감상하고 비평하는 주요한 영화 이론으로 자리 잡은 ㉣'작가주의 영화'가 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이를 통해 누벨바그 영화 운동은 세계 영화사에서 고전 영화를 현대 영화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디디몰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내러티브: 실화나 허구의 사건들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구조적 형식.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누벨바그 영화라는 명칭의 유래와 함께 여러 감독의 영화관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 ② 누벨바그 영화의 작품 경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누벨바그 영화가 영화계에 반항을 일으키게 된 사건을 소개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다.
- ④ 누벨바그 영화가 쇠퇴하게 된 이유를 근대 사회의 시대적 특성과 관련지어 언급하고 있다.
- ⑤ 누벨바그 영화가 인접 예술 분야로까지 확산되었던 과정을 예술사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화 제작을 할 때, ㉠과 달리 ㉡은 문학 작품을 각색하는 데 치중했겠군.
- ② 촬영 장소를 선정할 때, ㉠과 달리 ㉡은 실내 스튜디오 촬영을 더 중시했겠군.
- ③ 영화 제작을 기획할 때, ㉠보다 ㉡이 제작 비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했겠군.
- ④ 영화배우를 섭외할 때, ㉠보다 ㉡이 배우의 인지도와 연기 능력을 더 중시했겠군.
- ⑤ 영화를 제작할 때, ㉠보다 ㉡이 발전된 영화 제작 기술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겠군.

3. ㉢과 관련된, '장뤼크 고다르' 감독의 영화 제작 태도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운 시청각적 스타일을 도입해 영화 작품의 기획 및 제작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한다.
- ② 배우들의 실제 삶의 모습을 촬영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보여 준다.
- ③ 다양한 편집 기법을 동원하여 우리 주위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비판한다.
- ④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배우들의 즉흥적인 연기를 통해 인간의 삶에 밀착된 장면을 담아낸다.
- ⑤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당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조명한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장뤼크 고다르 감독의 대표작인 영화 「네 멋대로 해라」는 누벨바그 영화 운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젊은 청춘 남녀들의 자유분방한 삶을 잘 담고 있다. 이 작품은 기존의 할리우드 영화에 비해 파격적인 시도를 보여 주었는데 감독은 촬영 직전에야 배우들에게 대체적인 이야기 전개를 알려 주었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경량 카메라를 사용해 배우들이 뛰어가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관객을 향한 배우의 정면 응시, 극 중이나 마무리에 자주 삽입되는 배우 인터뷰 장면, 점프 컷을 활용한 편집 방식 등을 통해 관객들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불편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 ① 청춘 남녀들의 자유분방한 삶을 소재로 한 젊은 '지금 여기'의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라 할 수 있군.
- ② 영화의 마지막에 배우의 인터뷰 장면을 삽입한 것은 영화에 담겨 있는 감독과 배우의 가치관을 관객들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이군.
- ③ 경량 카메라를 사용해 인물들이 뛰어가는 장면을 촬영한 것은 배우들의 연기 장면을 생생하고 생동감 있게 촬영하기 위한 의도라 할 수 있군.
- ④ 영화 편집에서 점프 컷을 사용한 것은 서사의 연속적인 흐름을 깨뜨리거나 장면을 비약시켜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군.
- ⑤ 여러 가지 파격적인 시도를 통해 관객들이 영화를 이해하는 데 불편을 느끼도록 한 것은 관객들이 감독의 의도와 영화의 예술성을 헤아려 보도록 한 것이군.

5. <보기>를 고려하여 밑글에서 누벨바그 영화가 갖는 의미를 ㉔와 같이 설명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작가주의 영화’는 작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감독이 영화의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전제된 영화로, 영화를 전적으로 감독이 갖고 있는 예술적 의식의 소산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작가주의 영화감독들은 진지한 주제와 자유로운 양식을 좇아 개성적인 표현과 창의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영화 제작에 몰두하였다. 하지만 영화가 감독 한 사람의 작업만으로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 촬영 기사, 제작자의 작업과 여러 제작 기술이 종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편의 영화를 감독의 창작품으로 인정하는 작가주의 영화의 관점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유발했다.

- ① 누벨바그 영화가 보여 주었던 대중적인 특성이 작가주의 영화에서 심화되었기 때문이군.
- ② 누벨바그 영화를 통해서 향상된 영화감독의 위상이 작가주의 영화에서 극대화되었기 때문이군.
- ③ 누벨바그 영화의 비관적인 내러티브가 작가주의 영화에서 감독의 상상력으로 재구성되었기 때문이군.
- ④ 누벨바그 영화에서 활용된 제작 기술들이 작가주의 영화에서 감독의 창의적인 연출로 종합되었기 때문이군.
- ⑤ 누벨바그 영화에서 영화의 공동 제작자에 머물러 있던 감독이 작가주의 영화에서 창작자로 격상되었기 때문이군.

6. <보기>를 참고할 때, ㉕와 단어의 구성이 가장 유사한 것은?

— < 보 기 > —

㉕는 아래와 같은 직접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디딤돌: 디딤 + 돌  
(용언의 명사형) (명사)

- ① 생김새
- ② 마음씨
- ③ 맺음말
- ④ 솜방망이
- ⑤ 울음소리

소요 시간
·
·

[정답] 1 ② 2 ④ 3 ④ 4 ② 5 ② 6 ③

[1] ② 누벨바그 영화는 프랑스 시적 리얼리즘 영화에 반발해서 등장한 영화 운동으로 영화감독의 개성을 잘 드러낸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영화이다. 이 글은 이전의 시적 리얼리즘 영화와는 다른 누벨바그 영화 작품의 주요 경향을 소개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대표적 영화감독 장뤼크 고다르가 실험적 기법을 활용하여 만든 「미치광이 피어로」라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① 이 글에서는 누벨바그 영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고다르의 예술적 경향은 살펴볼 수 있으나 여러 감독의 영화관을 비교 분석하는 내용은 살펴볼 수 없다.
- ③ 이 글에서는 시작 부분에서 프랑스 시적 리얼리즘 영화의 특징을 소개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으나 누벨바그 영화가 영화계에 반향을 일으키게 된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은 살펴볼 수 없다.
- ④ 이 글에서는 근대 사회의 시대적 특성에 대한 언급이나 누벨바그 영화가 쇠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없다.
- ⑤ 이 글에서는 누벨바그 영화가 인접 예술 분야로까지 확산되었던 과정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없다.

[2] ④ 누벨바그 영화는 배우를 선정할 때 대중들이 선호하는 스타의 기용을 피했다는 점에서 ㉠보다는 ㉡이 배우의 인지도를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① 영화를 만들 때 ㉠은 통속적인 문학 작품을 각색하여 만드는 데 치중했다고 할 수 있다.
- ② 영화 촬영 장소를 고려할 때, ㉠은 인공적이고 화려한 실내 스튜디오를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 ③ 영화 제작을 할 때 들이는 비용의 측면에서는 누벨바그 영화감독들이 시적 리얼리즘 영화가 지나치게 비용을 많이 들였다고 비판하는 데서 ㉠보다는 ㉡이 상대적으로 저예산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은 필름, 카메라, 녹음 기계 등 기술의 발달로 야외 촬영과 즉흥 연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20세기 영화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영화라는 점에서 ㉠보다는 ㉡이 발전된 영화 제작 기술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화라는 점에서 ㉠보다는 ㉡이 발전된 영화 제작 기술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3] ④ ㉡은 감독의 연출이나 개입 없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대로를 영화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이 점은 배우들에게 장면을 맡겨 배우들이 대본에 없거나 대본과 다른 장면을 촬영 현장에서 즉석으로 연기하는 일과 관련 있다. 따라서 ㉡은 감독에 의해 세밀하게 짜인 연출을 중시하기보다는 배우들의 순간 연기나 현장 상황에 따라 장면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담아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① 의도되지 않은 인간의 삶을 다루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청각적 스타일을 도입하여 영화의 기획이나 제작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 ② 배우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지만 배우들의 실제 삶의 모습을 촬영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보여주고자 한 것은 아니다.
- ③ 예측 불가능한 삶을 다루고자 한 것이지만 다양한 편집 기법을 동원하여 현실의 문제를 비판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 ⑤ 인간의 삶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배우들의 연기를 보여주고자 한 것도 당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조명한 것도 아니다.

[4] ② 영화의 마지막에 배우의 인터뷰 장면을 삽입한 것은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 이해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다르는 관객들이 잘 편집되고 완결성 있는 영화를 보면서 감독의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을 주입받는 관행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 ① 이 영화에서 청년 남녀들이 주로 등장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분방한 삶을 소재로 '지금 여기'의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경량 카메라를 주로 사용해 인물들이 뛰어가는 장면을 촬영한 것은 배우들의 연기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다르는 관객들이 잘 편집되고 완결성 있는 영화를 보면서 감독의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을 주입받는 관행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고 생동감 있게 촬영하기 위한 의도라 할 수 있다.

④ 영화 편집에서 점프 컷을 주로 사용한 것은 급격한 장면 전환으로 서사의 연속성을 깨뜨리거나 장면을 비약시키는 방법을 통해 서사에 대해 관객들이 스스로 상상해 볼 것을 의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관객들이 영화를 이해하는 데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관객들이 영화를 볼 때 모든 지적 능력과 문화적 경험을 동원하고 감독의 의도와 영화의 예술성을 헤아려 보도록 해야 한다는 고다르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구성되어 있다.

② ‘마음씨’는 ‘마음(명사)+씨(접사)’로 구성되어 있다.

④ ‘솜방망이’는 ‘솜(명사)+방망이(명사)’로 구성되어 있다.

⑤ ‘울음소리’는 ‘울음(명사)+소리(명사)’로 구성되어 있다.

---

[5] ② 영화 제작의 핵심 인물이 감독이고 영화를 감독이 갖고 있는 예술적 의식의 소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주의 영화에서는 감독의 위상이 극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작가주의 영화의 이러한 관점은 시적 리얼리즘 영화에서 영화의 공동 제작자에 머물러 있던 감독이 누벨바그 영화에서 그 위상이 높아졌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누벨바그 영화 운동이 작가주의 영화가 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은 감독의 주체성과 상상력을 중시하면서 감독을 영화의 중심에 서게 한 누벨바그 영화가 작가주의 영화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말로 이해할 수 있다.

① 이 글에서는 누벨바그 영화가 대중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고, <보기>를 통해 작가주의 영화에서 그것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다.

③ 이 글에서는 비관적인 내러티브를 보여 주는 영화는 시적 리얼리즘 영화라고 언급되어 있다.

④ 이 글에서는 누벨바그 영화의 영화 제작 기술들은 언급되어 있으나 <보기>에서는 작가주의 영화에서 이를 종합했다는 언급은 살펴볼 수 없다.

⑤ 이 글에서는 영화감독이 공동 제작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시적 리얼리즘 영화라고 언급되어 있다.

---

[6] ③ ㉞는 ‘디딤(용언의 명사형)+돌(명사)’로 구성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㉟ 또한 ‘맺음(용언의 명사형)+말(명사)’로 구성되어 있다.

① ‘생김새’는 ‘생김(용언의 명사형)+새(접사)’로

### 1부) 1-3. 유클리드 기하학과 택시 기하학

#### [2021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모든 학문적 지식은 판단의 형식을 취하는데, 18세기 철학자인 칸트는 모든 판단을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으로 구분한다. 분석 판단이란 주어 개념이 술어 개념을 포함하는 판단이다. 예컨대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는 분석 판단인데, 주어 개념인 ‘총각’을 분석하면 술어 개념인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따라 나오기 때문이다. 분석 판단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기 위해서 언어에 대한 이해 이외의 경험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다. ‘총각’이라는 개념과 ‘미혼 남자’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판단이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총각은 키가 크다.’처럼 주어 개념 안에 술어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주어 개념에 부가적인 정보를 덧붙이는 판단은 종합 판단이다. ‘총각’의 개념은 ‘키가 크다.’라는 개념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판단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총각은 키가 크다.’는 거짓이긴 하지만 만약 참이라면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준다.

칸트는 이어서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을 구분한다.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 구분은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 구분과 달리 명제 자체가 아니라 명제에 관한 지식과 관련된다. 선천적 지식은 경험과 무관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이다. 모든 분석 판단은 선천적으로 알 수 있다. 분석 판단에 포함된 용어들의 의미만 알면 된다. 이와 달리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후천적으로만, 즉 사람들이 까마귀를 경험한 다음에 알 수 있다. 감각 경험을 통해 까마귀가 사례별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까마귀를 경험할 수 없고,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태어날 까마귀는 경험할 수 없기에 ‘모든 까마귀는 검다.’와 같은 후천적 지식으로는 결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을 얻을 수 없다.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선천적 지식이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닌 지식이다.

분석 판단은 분명히 선천적으로 알 수 있다. 총각이 결혼했는지 알기 위해 총각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모든 까마귀는 검다.’처럼 오직 후천적으로만 알 수 있는 진술이 종합적이라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진술들은 술어에 나타나는 것(‘검다’)이 주어에서 언급된 것(‘까마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칸트는 세 번째 범주, 즉 종합적이면서 동시에 선천적으로 알 수 있는 진술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진술이 경험과 무관하게 옳은 것임에도, 분석 판단과 달리 낱말의 의미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언어 바깥의 세계에 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칸트는 학문적 지식이란 필연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학문적 지식은 선천적이면서 종합적인 판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천적인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적인 질문이다. 칸트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모든 공리와 정리가 선천적 종합 판단이라고 보았다. 가령 ‘직선은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이다.’라는 명제는 확실히 종합적이다. 왜냐하면 ‘곧음’이라는 개념은 양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않고 다만 성질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곧음’이라는 개념으로부터 ‘가장 짧은 거리’라는 개념이 도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직선은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이다.’라는 명제는 직관에 의해 절대적 확실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종이에 점을 찍고 선을 그려 보는 경험에 의하지 않고서도 전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선천적이다. 그래서 칸트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선천적인 종합 명제가 존재함을 보증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칸트의 철학적 인식론은 철학과 과학 발전에 중요한 근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유클리드 기하학이 선천적이라는 믿음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출현으로 칸트가 선천적으로 보았던 명제들이 결국은 경험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져서 무너지게 된다. 기원전 350년경에 쓰인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에는 다섯 가지의 공리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다섯 번째 공리는 매우 복잡하지만 평행선 개념을 사용하여 ‘직선 밖의 한 점에서 이 점을 지나 주어진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기술할 수 있다. 이와 동치인 또 하나의 공리는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라는 공리이다. 평행선 공리를 검증하려면 두 직선을 무제한 늘려야 하므로, 이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이러한 공리들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

< [A] 과거에는 지구가 평평하며 인간은 그러한

평면 위에서 살고 있다고 믿었다. 후에 지구는 둥글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유클리드 기하학은 평면을 다루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구를 완전한 구라 생각하고 이와 같은 구면에 적합한 기하학에 대해 생각해 보자. 구면 위에서의 직선은 무엇일까? 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구의 면 위에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대원(大圓)을 그렸을 때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는 대원의 일부가 되고 이러한 대원의 일부를 구면의 측지선이라고 한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답변은 대원을 직선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면에서의 직선은 유한한 길이를 갖는다. 또한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면거리라 하는데 구면거리는 두 점을 잇는 측지선이 된다. 이에 따르면 모든 경선과 적도를 통과하는 위선은 그 자체가 대원이므로 직선이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우리는 구면 위에서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북극에서 적도로 내려오는 경선 두 개와 그 둘을 연결하는 적도상의 선분을 취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크게 된다. 따라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평행선 공리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지구 표면에 그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삼각형의 크기가 작을수록 180도에 가까워지지만 그 크기가 커질수록 180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구면 위에서 성립하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구면기하학이라 부른다. 한편 말안장 모양의 곡면에서의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쌍곡기하학이라 하는데 여기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작다. >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온 후,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평평하지 않고 중력에 의해서 휘어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공간에 대한 기초 이론을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찾았다. 이처럼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출현은 철학에서의 인식론뿐만 아니라 과학의 발전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유클리드 기하학은 칸트에 의해서 정립되었다.
  - ②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선천적인 명제를 다룬다.
  - ③ 평행선 공리는 경험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다.
  - ④ 분석 판단은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 준다.
  - ⑤ 칸트에 따르면 지식은 경험에 의해서만 나온다.

- 다.
2. 윗글의 '분석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저 아저씨는 남자이다.
  - ② 모든 처녀는 여자이다.
  - ③ 카페의 냉커피는 차다.
  - ④ 태양의 모양은 둥글다.
  - ⑤ 삼각형에는 각이 있다.
3. 윗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보기> 중 칸트가 동의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모든 분석 판단은 선천적 지식이다.  
 ㄴ. 모든 후천적 지식은 종합 판단이다.  
 ㄷ. 모든 선천적 지식은 분석 판단이다.  
 ㄹ. 어떤 선천적 지식은 종합 판단이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4. ㉠과 같은 의문을 품은 사람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험과 무관한 진술이 낱말의 의미에 의해 어떻게 옳음이 결정될 수 있는가?
    - ② 세계에 관한 진술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낱말의 의미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가?
    - ③ 세계에 관한 진술인데도 그것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가?
    - ④ 낱말의 의미에 의해 옳음이 결정되는 진술이 어떻게 세계에 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가?
    - ⑤ 경험에 의해 옳음이 밝혀지는 진술인데도 어떻게 언어에 대한 이해 이외의 경험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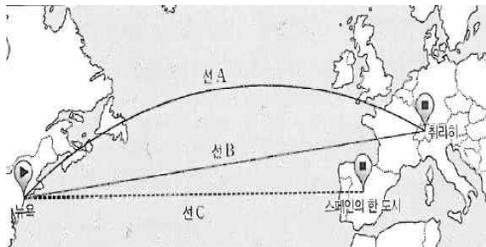
5. [A]를 바탕으로, '구면기하학'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서로 다른 두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난다.
- ② 완전한 구에서 두 직선의 길이는 유한하며 항상 같다.
- ③ 정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길수록 내각의 크기의 합은 커진다.
- ④ 두 점 사이의 구면 거리는 긴 것과 짧은 것 두 개가 존재한다.
- ⑤ 평면을 다루는 기하학에서의 곡선은 구면기하학에서 직선이 될 수 있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평면인 지도 위에 북반구에 위치한 위도가 다른 도시인 뉴욕과 취리히 사이의 항공 경로를 나타내었다. 왼쪽의 뉴욕에서 오른쪽의 유럽의 취리히까지의 측지선을 그리면 선 A가 되며, 지도상에서의 최단 거리의 선분을 그리면 선 B가 된다. 선 C는 뉴욕과 위도가 같은 스페인의 한 도시까지의 지도상의 최단 거리의 선분을 그려 나타낸다. 단, 지구는 완전한 구라고 가정한다.



- ① 선 A는 지구 위에 대원을 그렸을 때의 대원의 원호에 해당하겠군.
- ② 선 C의 항로는 두 도시의 위도가 같지만 최단 항로로 비행한 것은 아니겠군.
- ③ 선 A는 지도 위에서는 곡선이나 구면기하학에서는 직선의 부분에 해당하겠군.
- ④ 선 B의 항로를 이용하여 이동한다면 선 A의 항로를 택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군.
- ⑤ 평면인 지도상에 선 B를 축으로 하여 선 A를 대칭 이동한 선을 따라 항로를 취하면 선 A의 항로와 거리가 같겠군.

소요 시간
·
·

[정답] 1 ㉓ 2 ㉔ 3 ㉔ 4 ㉓ 5 ㉔ 6 ㉕

[1] ㉓ 5문단에서 평행선 공리를 증명하려면 직선을 무제한 늘여서 확인해야 하므로,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㉑ 4문단에서 '칸트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모든 공리와 정리가 선천적 종합 판단이라고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유클리드 기하학이 이미 있고, 다만 칸트가 그것을 특정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㉒ 5문단에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출현으로 칸트가 선천적이라고 보았던 내용들이 결국은 경험에 기반한 것임이 밝혀졌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선천적인 명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㉔ 1문단에서 '분석 판단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기 위해서 언어에 대한 이해 이외의 경험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 판단은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 주지 않는다.

㉕ 2문단에서 칸트는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을 구분하는데, 선천적 지식은 '경험과 무관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칸트가 지식이 경험에 의해서만 나온다고 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 ㉔ 1문단에 따르면, 분석 판단은 '주어 개념이 술어 개념을 포함하는 판단'으로 '참과 거짓을 판별하기 위해서 언어에 대한 이해 이외의 경험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태양이 둥근지 알기 위해서는 태양을 관찰하는 경험을 해야하므로 해당 진술은 분석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㉑ '아저씨'라는 주어 개념이 '남자'라는 술어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분석 판단이다.

㉒ '처녀'라는 주어 개념이 '여자'라는 술어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분석 판단이다.

㉓ '냉커피'라는 주어 개념이 '차다'라는 술어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분석 판단이다.

㉕ '삼각형'이라는 주어 개념이 '각이 있음.'이라는 술어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분석 판단이

다.

[3] ㉔ ㄱ. 3문단에서 '분석 판단은 분명히 선천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칸트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모든 분석 판단은 선천적 지식이다.'라는 것은 칸트의 견해이다.

ㄴ. ㄱ의 '모든 분석 판단은 선천적 지식이다.'는 '모든 선천적이지 않은 지식은 분석 판단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다. 이 말은 또 '모든 후천적 지식은 종합 판단이다.'라는 말과 같다. 그리고 3문단에서도 '오직 후천적으로만 알 수 있는 진술이 종합적이라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ㄷ. 4문단에서 칸트는 '선천적인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묻고 '유클리드 기하학의 모든 공리와 정리가 선천적 종합 판단이라고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칸트는 '모든 선천적 지식은 종합 판단이다.'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떤 선천적 지식은 종합 판단이다.'에는 동의한다.

ㄹ. ㄷ의 해설에 따르면, 칸트는 '어떤 선천적 지식은 종합 판단이다.'에 동의한다. 따라서 어떤 선천적 지식 중 분석 판단이 아닌 것이 있으므로, 칸트는 '모든 선천적 지식은 분석 판단이다.'라는 진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4] ㉓ ㉑은 종합적이면서 동시에 선천적으로 알 수 있는 진술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고 있다. '종합적'인 것은 1문단에서 말하듯이 세계에 대한 지식이고, '선천적'인 것은 2문단에서 말하듯이 경험과 무관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이다. 따라서 ㉑은 세계에 관한 진술인데도 그것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지 묻고 있다.

㉑ 1문단에서 경험과 무관한 진술은 분석 판단이라고 말했고 이것은 낱말의 의미에 의해 옳음이 결정되므로, '경험과 무관한 진술이 낱말의 의미에 의해 어떻게 옳음이 결정될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없다.

㉒ ㉑은 세계에 관한 진술인데도 그것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지 묻

는 것이지 세계에 관한 진술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낱말의 의미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다. 두 물음은 분명히 다르다.

④ 낱말의 의미에 의해 옳음이 결정되는 진술은 세계에 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없다. 곧 분석 진술은 종합 진술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낱말의 의미에 의해 옳음이 결정되는 진술이 어떻게 세계에 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가?'는 그 자체가 옳은 물음이 아니다.

⑤ ㉠은 종합적이면서 선천적이기도 한 판단이 어떻게 있느냐는 물음이다. 그런데 '경험에 의해 옳음이 밝혀지는 진술인데도 어떻게 언어에 대한 이해 이외의 경험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물음은 후천적 지식이 어떻게 모두 분석적이냐고 묻는 물음이다.

---

[5] ④ 구면에서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면 거리라 하였으므로 구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구면거리는 짧은 것 한 개가 된다.

① 구면 위에서 두 점을 잇는 직선은 대원이 되므로 서로 다른 두 직선, 즉 대원은 두 점에서 만난다.

② 구면기하학에서 두 직선은 대원이므로 완전한 구라면 길이는 유한하고 크기는 항상 같다.

③ 구면에 그린 삼각형 내각의 합은 삼각형의 크기가 작을수록 180도에 가까워지지만 그 크기가 커질수록 180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정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내각의 크기의 합도 커진다.

⑤ 평면에서의 원은 그 원을 대원으로 갖는 구에서의 직선에 해당한다.

---

[6] ⑤ 뉴욕과 취리히를 잇는 측지선인 선 A는 구면 기하학에서 최단 거리가 되며 최단 거리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은 한 개 존재한다. 따라서 선 A를 대칭 이동하여 선을 만들면 이 선은 최단 거리가 될 수 없다.

① 선 A는 측지선에 해당하므로 대원의 원호에 해당한다.

② 선 C는 측지선이 아닌 위도가 같은 선을 연결

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구면에서 대원보다 작은 원의 원호임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최단 항로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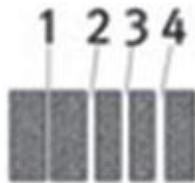
③ 선 A는 구면기하학의 직선의 일부를 평면 기하학에 기반하여 그린 선이므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직선의 일부분을 그려 놓은 것이다.

④ 선 A가 측지선에 해당하므로 구면 위에서 최단 거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 B의 항로가 더 오래 걸리는 경로이다.

1부) 2-1. 바코드

[2016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판매원이 바코드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바코드에 포함된 정보를 읽어 내는 시스템은 스캐너, 디코더 및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스캐너는 레이저 빛을 쏘는 부분과 빛을 검출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바코드에 빛을 쏘면 바코드의 검은 막대 부분은 적은 양의 빛을 반사하고, 흰 부분은 많은 양의 빛을 반사한다. 스캐너는 이렇게 반사된 빛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고, 이를 다시 0과 1로 바꾼다. 디코더는 이 정보를 문자와 숫자의 부호로 변환하는 디코딩 과정을 거쳐 컴퓨터로 전송한다. 그래서 물건이 계산기에 설치된 바코드 스캐너를 통과하면 @바로 컴퓨터에서 금액, 판매량 등 각종 정보를 집계할 수 있다.



<그림 1>

<그림 1>은 1948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바코드이다. 나란히 나열된 선 모양을 가지고 정보를 배열하기 때문에 1차원 바코드라 부른다. <그림 1>은 검은 바탕에 4개의 흰 줄이 그어져 있다. 이 중 1번 줄은 기준선이 되고 나머지 세 줄이 정보를 제공하므로 세 줄 바코드라 부른다. <그림 1>에서 나머지 2, 3, 4번 줄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정해진 곳에 흰 줄이 있는 경우는 1을, 흰 줄이 없는 경우는 0을 나타낸다. 여기서 4번 줄은 이진수 뒤에서 첫 번째 자리, 3번 줄은 이진수 뒤에서 두 번째 자리, 2번 줄은 이진수 뒤에서 세 번째 자리를 나타낸다. <그림 1>은 기준선 이외에 세 개의 선이 다 그어져 있으므로 이것은 이진수로 111을 의미하고, 이를 십진수로 환산하면  $1 \times 2^2 + 1 \times 2^1 + 1 \times 2^0 = 7$ 이 된다. 이렇게 십진수로 환산된 숫자에 물건에 대한 정보를 대응시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세 줄 바코드에서는 0~7까지의 여덟 가지를 표시할 수 있지만, 한 자릿수가 더 늘어나 네 줄 바코드가 되면 24이 되어 세 줄 바코드보다 여덟 가지를 더 표현할 수 있다. 이같이 바코드 줄의 수를 늘림으로써 정보의 양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그림 2>

최초의 바코드와는 달리 최근에 쓰이는 1차원 바코드는 선이 매우 많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그림 2>에서와 같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표준형 바코드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림 2>를 보면 8801234567893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다. 여기서 앞의 세 자리는 국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데, 880은 우리나라의 국가 표시이다. 그 다음의 숫자인 1234는 5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국가 표시 다음부터 띄어쓰기 전까지의 숫자 1234는 제조업체를 나타내는 정보이며, 띄어쓰기 이후에 나타나는 숫자들 중 마지막 숫자를 제외한 56789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마지막 숫자 3은 검증 코드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바코드에서 읽은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3>

< [A] 1차원 바코드보다 나중에 등장한 2차원 바코드는 사각형 안에 정보를 담는다. <그림 3>은 대표적인 2차원 바코드인 QR 코드이다. QR 코드에 담긴 정보를 읽는 기본 원리는 1차원 바코드와 유사한 데, 바둑판무늬가 밝은색이나 어두운색이냐에 따라 0과 1로 구분한다. 1차원 바코드가 가로 방향으로만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데 비해, QR 코드는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정보를 담을 수 있으므로 1차원 바코드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또한 QR 코드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와 더불어 광고, 홍보 부문에서 활

발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QR 코드의 위치 표지와 관련이 있다. <그림 3>처럼 QR 코드의 사각형 모서리 세 곳에는 큰 네모 상자가 있는데,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찍을 때 위치를 찾기 위한 표지가 된다. 즉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거꾸로 찍어도 큰 네모 상자도 인해 정보를 읽는 데는 문제가 없게 된다. 남은 한군데 모서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는 작은 네모 상자가 있는데, 이것은 QR 코드의 기준점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의 초점을 QR 코드에 맞추도록 해 주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소비자는 스마트폰의 QR 코드 인식 애플리케이션으로 QR 코드를 찍음으로써 여기에 담긴 상품의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진, 홍보 동영상, 할인권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최초의 바코드는 이진법 체계를 활용한 세 줄 바코드였다.
- ② 디코더에서는 전기적 신호를 검증하여 물건의 품질을 확인한다.
- ③ 1차원 바코드는 줄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 ④ 2차원 바코드는 가로와 세로 양방향에 모두 정보를 담을 수 있다.
- ⑤ 스캐너에서는 빛의 반사량의 차이를 통해 신호를 0과 1로 구분한다.

2.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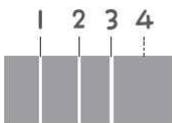
회사원 A씨는 지하철 광고판에서 “OO제과 홈서비스 시작! QR 코드를 찍어보세요.”라는 광고를 보았다.

- ① OO제과의 광고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을 것이다.
- ② OO제과는 QR 코드를 활용하여 광고판에서 다룰 수 없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OO제과는 해당 상품의 웹 사이트 접속 횟수를 통해 상품의 판매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A 씨 휴대폰의 QR 코드 인식 애플리케이션은 광고판의 QR 코드를 거꾸로 인식하게 만들 것이다.
- ⑤ A 씨가 휴대폰의 QR 코드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QR 코드를 찍어도 영상 정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 의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



(나)

(가)는 세 줄 바코드로 1번 줄은 기준선이고 나머지 줄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3번 줄은 흰 줄이 없다.

- ① (가)를 십진수로 환산한다면 6이 되겠군.
- ② (가)와 (나)는 가로 방향으로만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3번 줄도 없다면 이진수로 '100'을 의미하게 되겠군.
- ④ (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상품으로, 검증 코드는 '2'가 되겠군.
- ⑤ (나)를 만든 제조업체의 다른 종류의 상품에도 '20259'가 그대로 표시되겠군.

4. 문맥상 ㉔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돈이 어디서 났는지 바로 대라.
- ② 학생들은 바로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다.
- ③ 그는 놀자마자 바로 코를 골기 시작했다.
- ④ 국어 선생님이 바로 우리 담임 선생님이시다.
- ⑤ 정해진 답안지에 바로 쓰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소요 시간
: :

[정답] 1 ② 2 ② 3 ⑤ 04 ③

[1] ② 반사된 빛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검증하여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것은 스캐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글에서 바코드를 판독하면 물건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①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2문단의 '이같이 바코드 줄의 수를 늘림으로써 정보의 양을 늘릴 수 있게 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4문단의 '1차원 바코드가 가로 방향으로만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데 비해, QR 코드는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정보를 담을 수 있으므로 1차원 바코드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1문단의 '바코드에 빛을 쏘면 바코드의 검은 막대 부분은 적은 양의 빛을 반사하고, 흰 부분은 많은 양의 빛을 반사한다. 스캐너는 이렇게 반사된 빛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고, 이를 다시 0과 1로 바꾼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② <보기>의 OO제과는 제한적인 지하철 광고판에서 전달할 수 없는 사진, 홍보 동영상, 할인권 등의 정보를 소비자들이 QR 코드를 통해 해당 상품의 웹 사이트에 접속하면 추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① 4문단의 'QR 코드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와 더불어 광고, 홍보 부문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데'를 통해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 ③ [A]로 볼 때, 소비자들은 해당 상품의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홍보 자료를 보는 것이지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다.
- ④ QR 코드의 사각형 모서리 세 곳에 있는 큰 네모 상자가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찍을 때 위치를 찾기 위한 표지가 되는 것이지, QR 코드 인식 애플리케이션이 QR 코드를 거꾸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 ⑤ 4문단의 '그래서 소비자는 스마트폰의 QR 코

드 인식 애플리케이션으로 QR 코드를 찍음으로써 여기에 담긴 상품의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진, 홍보 동영상, 할인권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에서 영상 정보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⑤ (나)에서 '20259'는 상품 번호로, 상품의 종류마다 바뀌는 것이다.

- ① (가)는 기준선과 2번 줄, 3번 줄이 있고 4번 줄은 없으므로 이진수 '110'이 되고, 이를 십진수로 환산하면  $1 \times 2^2 + 1 \times 2^1 + 0 \times 2^0 = 6$ 이 된다.
- ② (가)와 (나)는 1차원 바코드이므로 가로 방향으로만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 ③ (가)에서 3번 줄을 없애면 기준선과 2번 줄만 남게 되므로, 이진수로 '100'을 의미하게 된다.
- ④ 3문단의 '마지막 숫자 3은 검증 코드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바코드에서 읽은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를 통해 (나)의 검증 코드는 2임을 알 수 있다.

[4] ③ ㉔는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㉓이다.

- ① '거짓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이 곧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다름이 아니라 곧.'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도리, 법식, 규정, 규격 따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1부) 2-2. 사후 가정 사고

### [2019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⑨대학생 갑은 시험 전날 우연히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 밤새 이야기를 하다가 졸린 상태에서 시험을 보았고, 대학생 을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두 사람 모두 C라는 학점을 받았다고 해 보자. 이때 갑과 을은 C라는 성적 결과를 보고 ‘내가 ~했다면, ~했을 텐데’ 또는 ‘~하지 않았다면, ~했 을 텐데’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어떤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하는,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대안적 사건들에 대한 생각을 ‘사후 가정 사고’라고 한다. 사후 가정 사고는 ‘~했다면’ 또는 ‘~하지 않았다면’에 해당하는 조건 부분과 ‘~했을 텐데’ 또는 ‘~할 뻔했다’라는 결과 부분으로 구성되는 조건문의 형태를 가진다. 조건 부분에서는 특정 선행 사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결과 부분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사후 가정 사고는 조건 부분의 전환 구조에 따라서 ‘추가형’과 ‘삭제형’ 사후 가정 사고로, 결과 부분의 전환 방향에 따라서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와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추가형은 사실을 가상의 상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을 마치 실제로 일어났던 것처럼 추가하는 것이고, 삭제형은 일어난 사건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 내는 사후 가정 사고이다. 한편 일어난 사건보다 더 나은 대안적 사건을 결과로 가상하는 것을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라 하고, 더 나쁜 대안적 사건을 결과로 가상하는 것을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라고 한다. 부정적 결과를 경험했을 때는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가, 긍정적 결과를 경험했을 때는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가 많이 나타난다.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는 현실의 사실적 사건보다 더 못한 가상적 사건을 상상하여 대조 효과로 인해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나은 대안의 결과를 상상하는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를 더 많이 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사후 가정 사고는 그것이 일단 유발된 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구성된다. 사후 가정 사고를 유발하는 요 인에는 동기와 선행 사건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 동기는 사후 가정 사고의 결과 부분과 관련되는데, 동기와 관련되는 세부 요인은 다양하

다. 어떤 결과에 대해 기대가 클수록, 결과가 부정적일수록, 결과에 대해 개인 이 개입한 정도가 클수록 사후 가정 사고에의 동기가 커지고 유발 정도가 높아진다. 대안적 사건의 근접성 이 높을 때에도 실제 사건의 전환성이 높게 지각되어 유발 정도가 높아지는데, 대안적 사건의 근접성은 현 실에서 일어난 사실적 사건이 대안적 사건과 가까운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비행기 이륙 시간보다 단 지 1분 늦게 도착해서 비행기를 놓쳤을 때가 2시간 늦게 도착해서 놓쳤을 때보다 비행기를 놓친 사실적 사 건과 놓치지 않은 대안적 사건이 더 가깝기 때문에 사후 가정 사고가 쉽게 유발된다. 또한 사실적 사건이 자 신의 예상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보다 일치되었을 때 사후 가정 사고가 유발되기 쉽다.

사후 가정 사고의 조건 부분과 관련되는 선행 사건의 변화 가능성은 선행 사건의 반대 상태 또는 바람직 한 대안을 인지적으로 가정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 정도를 나타낸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선행 사건은 보통 다수인데,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사건보다는 비정상적이고 평상시와 다른 예외적인 사건이 전환하기 더 쉽기 때문에 이 경우에 사후 가정 사고가 더 쉽게 유발되고, 예외적인 것이나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들을 변화시켜 사후 가정 사고의 조건 부분의 구체적 내용을 이룬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평소와 같은 길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비해 평소와 다른 길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사후 가정 사고가 ⑩일어나기 쉽고, 이때 ‘평소와 같은 길을 이용했다면’이라는 조건 부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후 가정 사고는 정서적 반응의 변화를 유발한다. 사람들은 선행 사건과 부정적 결과의 인과 관계를 강조해 그 선행 사건에 더 강한 책임이나 처벌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선행 사건을 변화시켜서 생각 하는 것은 변화시킨 선행 사건이 실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인과 추론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어난 결과와 비교되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사람들의 정서적 반응은 달라진다.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는 슬픔, 후회 등의 나쁜 감정들을 완화시키고 기쁨, 만족, 안도 등의 좋은 감정들을 증대시키는 반면,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는 미래의 유사한 상황에 대하여 준비하도록 하는 기능

을 한다. 사후 가정 사고는 어떤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그 사건이 쉽게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희생자에 비해 더 큰 동정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외적인 행동을 하여 어떤 사건의 희생자가 된 경우에 대한 사람들의 동정의 정서는 그 사람이 예외적인 행동을 한 이유가 내재적인지 외재적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예외적인 행동을 하여 희생자가 된 사람의 행동 이유가 그 행동을 한 사람의 내부에 있는가 혹은 외부에 있는가는 다른 사람들의 동정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처럼 사후 가정 사고는 인과 추론을 통해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사회적 판단이나 의사 결정에도 관련되어 있다.

1.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후 가정 사고의 유발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각 단계와 관련된 요인들을 검토하고 있다.
  - ② 사후 가정 사고의 구조에 따른 종류를 제시하고, 각 유형의 장점과 단점을 순차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 ③ 사후 가정 사고의 구조에 따른 종류와 유발 요인을 분석하고, 사후 가정 사고의 정서적 반응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사후 가정 사고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 가정 사고의 유용성을 분석하고 있다.
  - ⑤ 사후 가정 사고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소개하고, 하나의 관점에서 사후 가정 사고의 정서적 반응을 설명하고 있다.

2. 윗글을 바탕으로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갑이 친구와 밤새 이야기를 나눈 사건을 전환하였다면 갑에게는 삭제형 사후 가정 사고가 유발된 것이군.
  - ② 갑이 C라는 학점을 받은 사건을 긍정적 결과로 인식하고 사후 가정 사고를 했다면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를 한 것이겠군.
  - ③ 을이 자신이 받은 C라는 학점보다 더 나은 대안적 사건을 결과로 가상했다면 을에게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가 유발된 것이군.
  - ④ 갑의 선행 사건은 을의 선행 사건보다 선행 사건의 반대 상태를 가정하기 쉬우므로 을보다 갑이 삭제형 사후 가정 사고를 할 가능성이 크겠군.
  - ⑤ 을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시험 준비를 한 사건을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상황으로 전환하는 사후 가정 사고를 했다면 추가형 사후 가정 사고를 한 것이군.

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밑줄 친 부분이 ㉠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 < 보 기 > —

사람들에게 편의점에서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은 세 가지 경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첫 번째는 어떤 남자가 항상 다니던 A 편의점에서 강도를 만난 경우이고, 두 번째는 A 편의점을 다니던 어떤 남자가 일상에 변화를 추구하려는 생각으로 평소에 잘 가지 않던 B 편의점에 갔다가 강도를 만난 경우이고, 세 번째는 어떤 남자가 평소에 다니던 A 편의점이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잘 가지 않던 B 편의점으로 가서 강도를 만난 경우이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세 가지 경우의 희생자에 대해 동정의 정서를 느꼈다.

- ① 기쁨으로 환호성이 일어났다.
- ②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났다.
- ③ 꺼져 가던 불꽃이 다시 일어났다.
- ④ 나도 모르게 그 돈에 욕심이 일어났다.
- ⑤ 학생들이 학생회 문제를 들고 일어났다.

- ① 첫 번째 경우에 비해 두 번째 경우는 그 남자가 결과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첫 번째 경우보다 동정을 더 크게 느끼겠군.
- ②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경우에 비해 선행 사건의 변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첫 번째 경우보다 사후 가정 사고가 더 쉽게 유발되겠군.
- ③ 두 번째 경우는 세 번째 경우에 비해 결과에 대해 그 남자가 개입한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경우에 비해 사후 가정 사고의 유발 정도가 높겠군.
- ④ 세 번째 경우는 그 남자가 예외적인 행동을 한 이유가 외재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번째 경우에 비해 동정을 더 크게 느끼겠군.
- ⑤ 세 번째 경우의 선행 사건은 평상시와 다른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첫 번째 경우보다 사후 가정 사고가 더 쉽게 유발되겠군.

소요 시간
•
•

[정답] 1 ㉓ 2 ㉕ 3 ㉔ 4 ㉔

[1] ㉓ 1문단에서 사후 가정 사고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생각으로, 조건 부분에서 선행 사건의 전환이, 결과 부분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전환이 이루어진 조건문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문단에서 조건 부분의 전환 구조에 따라 '추가형'과 '삭제형'으로, 결과 부분의 전환 방향에 따라 '상향적'과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로 분석하고, 3문단과 4문단에서 사후 가정 사고의 유발과 구체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동기와 선행 사건의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5문단에서 사후 가정 사고는 인과 추론에 의해 사람들의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고, 동정과 같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㉔ 3문단에서 사후 가정 사고가 '일단 유발된 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구성된다.'라고 언급하였으나, 유발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한 것은 아니다. 또한 3문단과 4문단에서 사후 가정 사고와 관련된 요인들을 검토하고 있으나, 유발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단계와 관련된 요인들을 검토한 것은 아니다.

㉕ 2문단에서 사후 가정 사고의 구조에 따른 종류를 제시하였으나, '추가형', '삭제형', '상향적',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 유형의 장점과 단점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지는 않고 있다.

㉔ 이 글은 사후 가정 사고에 대한 견해를 드러낸 글이 아니라 사후 가정 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로, 사후 가정 사고에 대한 두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지도 않고 있다.

㉕ 이 글은 사후 가정 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로 사후 가정 사고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소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후 가정 사고의 정서적 반응을 하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

[2] ㉕ 2문단에서 '추가형은 사실을 가상의 상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을 마치 실제로 일어났던 것처럼 추가하는 것이고, 삭제형은 일어난 사건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 내는 사후 가정 사고'라고 하였다. ㉔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시험 준비를' 한 을의 선행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므로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상황으로 전환했다면 삭제형 사후 가정 사고를 한 것이다.

㉔ 4문단에서 '사후 가정 사고의 조건 부분과 관련된 선행 사건의 변화 가능성'이라고 하였고,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사건보다는 비정상적이고 평상시와 다른 예외적인 사건이 전환하기 더 쉽기 때문에 이 경우에 사후 가정 사고가 더 쉽게 유발'된다고 하였으므로, '우연히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 밤새 이야기를' 한 갑의 선행 사건은 일상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사건으로 갑이 조건 부분을 전환시킨다면 삭제형 사후 가정 사고를 하게 된다.

㉔, ㉕ 2문단에서 '부정적 결과를 경험했을 때는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가, 긍정적 결과를 경험했을 때는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였고, '일어난 사건보다 더 나은 대안적 사건을 결과로 가상하는 것을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라고 하였다. 따라서 갑이 실제 일어난 사건인 C 학점에 만족한다면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를 하고, 을이 C 학점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를 하게 된다.

㉔ 4문단에서 '선행 사건의 변화 가능성은 선행 사건의 반대상태 또는 바람직한 대안을 인지적으로 가정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하였고, '평상시와 다른 예외적인 사건이 전환하기 더 쉽기 때문에 이 경우에 사후 가정 사고가 더 쉽게 유발'된다고 하였다. 2문단에서 선행 사건을 전환하는 '삭제형은 일어난 사건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 낸다고 하였으므로, 갑이 을보다 선행 사건을 전환시키는 삭제형 사후 가정 사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3] ㉔ 5문단에서 사람들의 동정의 정서는 '예외적인 행동을 한 이유가 내재적인지 외재적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보기>의 세 번째 경우에서 그 남자가 잘 가지 않던 B 편의점으로 간 것은 '평소에 다니던 A 편의점이 문을 닫아 어쩔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B 편의점에 가는 예외적인 행동을 한 이유가 외재적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단지 '일상에 변화를 추구하려는 생각으로' B 편의점에 갔기 때문에 내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두 경우에 대해 느끼는 동정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① 5문단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그 사건이 쉽게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희생자에 비해 더 큰 동정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단지 ‘일상에 변화를 추구하려는 생각으로 평소에 잘 가지 않던 B 편의점에’ 간 두 번째 경우는 ‘항상 다니던 A 편의점에’ 간 첫 번째 경우에 비해 선행 사건이 그 남자가 통제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일상에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강도를 만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첫 번째 경우에 비해 두 번째 경우의 그 남자에 대해 더 큰 동정을 느끼게 된다.

② 4문단에서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사건보다는 비정상적이고 평상시와 다른 예외적인 사건이 전환하기 더 쉽기 때문에 이 경우에 사후 가정 사고가 더 쉽게 유발’된다고 하였다. <보기>의 두 번째 경우에서 어떤 남자가 ‘평소에 잘 가지 않던 B 편의점’에 간 것은 평상시와 다른 예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가 선행 사건의 변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첫 번째 경우에 비해 사후 가정 사고가 더 쉽게 유발된다.

③ 3문단에서 ‘결과에 대해 개인이 개입한 정도가 클수록 사후 가정 사고에의 동기가 커지고 유발 정도가 높아진다.’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일상에 변화를 추구하려는 생각으로 평소에 잘 가지 않던 B 편의점에’ 간 두 번째 경우가 ‘A 편의점이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잘 가지 않던 B 편의점으로’ 간 세 번째 경우에 비해 결과에 대해 그 남자가 개입한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경우는 세 번째 경우에 비해 사후 가정 사고의 유발 정도가 높다.

⑤ 4문단에서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사건보다는 비정상적이고 평상시와 다른 예외적인 사건이 전환하기 더 쉽기 때문에 이 경우에 사후 가정 사고가 더 쉽게 유발’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평소에 다니던 A 편의점이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잘 가지 않던 B 편의점으로’ 간 세 번째 경우의 선행 사건은 항상 A 편의점을 다니던 그 남자에게는 평상시와 다른 예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전환하기 쉬워서 첫 번째 경우보다 사후 가정 사고가 더 쉽게 유발된다.

---

[4] ④ ㉠에서 사후 가정 사고가 ‘일어나다’는 ‘어떤 마음이 생긴다.’의 의미이다. ‘나도 모르게 그 돈에 욕심이 일어났다.’가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사례이다.

- ① ‘소리가 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② ‘자연이나 인간 따위에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③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이 성하여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⑤ ‘몸과 마음을 모아 나서다.’의 의미로 쓰였다.

1부) 2-3.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2018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자유 무역과 시장 개방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거대 다국적 기업의 위협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조치들은 크게 관세 조치와 비관세 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관세 조치는 국경을 통과하는 재화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 관세를 조절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 수입품은 수입 시 부과된 관세만큼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수입이 억제된다. 반면에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게 되어 판매량이 유지되거나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관련 국내 산업이 보호된다.

관세 조치는 같은 수입품이라도 수입품의 종류와 가격, 수량 등에 따라 관세 부과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관세 수입\*을 늘려 궁극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관세의 부과 방법에는 크게 종가세 방식과 종량세 방식이 있다. 먼저 종가세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즉 종가세는 수입 상품 하나 하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품 가격이 설정된 기준 가격을 넘을 때마다 정해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가세 방식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기준 가격을 달리함으로써 관세부담을 조절할 수 있고, 수입품의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종가세는 주로 고가의 상품이나 사치품들의 수입을 억제하고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비해 종량세는 수입품의 중량, 용적, 면적 또는 개수 등 재화의 수량을 기준으로 세율을 화폐액으로 명시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종량세 방식은 수입품 단위당 일정 금액의 관세를 부과하므로 세액 결정이 용이하고, 수입품 하나하나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품의 양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종량세는 주로 외국으로부터 저가에 대량 유입되는 공산품이나 농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하여 해당분야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또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 적용하여, 두 가지세금 부과 방식의 장점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세 부과 방식도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 수입이 클수록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도 커진다. 그런데 종량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낮은 경우에, 종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높은 경우에 관세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입품의 가격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종량세를 부과하고 가격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종가세를 부과하여 관세 수입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또 가격이 비싼 제품의 경우 종가세를 먼저 적용한 후,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종량세를 적용하여 관세 수입을 극대화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관세 부과 방법을 복합세 부과 방식이라고 한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또 다른 조치로 비관세 조치를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 무역 협정이 확대되면서 무역 상대국 간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관세를 통한 국내 산업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조치가 정교화 되거나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비관세 조치로는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와 기술 장벽, 통관 지연 등이 있다. 먼저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는 식음료나 식물 수입 시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검역 기준이나 조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또 기술 장벽은 제품의 기술 표준을 국내산 제품에 유리하게 설정하거나 기술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까다롭게 하여 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품의 제조 비용을 상승시켜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통관 지연은 수입품에 대한 통관 절차와 서류 등을 복잡하게 하고 선적 검사나 전수 조사 등의 까다로운 검사 방법 등을 통해 수입품의 통관을 지연하는 것으로 수입품의 판매 시기를 늦추어 수입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기능을 한다.

\* 관세 수입: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금액.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종가세 방식의 관세 부과는 수입품의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
- ② 종량세 방식의 관세 부과는 저가의 공산품 수입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 ③ 자유 무역 협정의 확대로 인해 관세 조치의 국내 산업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 ④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입이 늘어날수록 해당 국내 생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
- ⑤ 최근에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조치가 정교화되거나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① A국이 자국산 전자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B국의 전자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겠군.
- ② A국이 B국의 전자 제품을 수입할 경우 제품 출시 초기에는 종가세 방식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자국의 전자 산업 보호에 효과적이겠군.
- ③ A국은 B국의 전자 제품의 가격이 급락할 경우 수입품 각각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B국 전자 제품의 수입량을 규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군.
- ④ B국이 자국에 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B국 시장에서 A국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군.
- ⑤ B국은 A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관세 부과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자국의 농수산업 보호에 효과적이겠군.

2.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국과 B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A국은 이전부터 농수산업이 크게 발달하여,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값싸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수출해 왔다. 반면 B국은 전자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반도체, 컴퓨터와 같은 고가의 전자 제품을 주로 수출해 왔다. 최근 들어 A국은 수출품 다변화를 위해 국내의 전자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자국의 전자 산업 육성을 위해 B국의 전자 제품 수입을 견제하기로 했다. 또 B국은 식량 주권을 지키고 자국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국의 농수산물에 대해 관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A국의 주요 수출품인 농수산물은 세계적인 기상 이변과 재해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B국의 주요 수출품인 전자 제품은 출시 초기 상당히 높은 가격이 형성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러 경쟁 국가에서 비슷한 기능과 성능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입 식음료에 대한 검역 기준을 강화하면 일부 수입 식음료의 국내 시장 반입을 차단할 수도 있다.
  - ② 유행에 민감한 수입품의 경우 수입 통관을 지연하면 적정 판매 시기를 놓쳐 수입품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
  - ③ 수입 식자재의 통관을 지연하면 식자재의 신선도가 떨어져 국내 시장에 해당 식자재의 유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 ④ 고가의 수입 전자 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면 관련된 국내 생산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
  - ⑤ 공산품을 수입하는 국가가 자국의 까다로운 기술 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면 수입품의 제조 과정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해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

4.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밑줄 친 말의 활용 양상이 ㉠와 가장 유사한 것은?

— < 보 기 > —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이러한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하는데, 불규칙 용언에는 어간이 바뀌는 것, 어미가 바뀌는 것,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것이 있다. ㉠ ‘머물러’는 어간 ‘머무르-’가 어미 ‘-어’와 결합하면서 어간의 ‘르’가 ‘르르’로 바뀌어 ‘머물러’로 활용된 것이다. 따라서 ㉠은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용언으로 볼 수 있다.

- ① 그는 얼마나 추위에 떨고 있었는지 입술이 파랬다.
- ② 우리들은 자정에 이르러 산 정상에 간신히 도착했다.
- ③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을 도와 물건을 나르기 시작했다.
- ④ 구급 대원들이 출동하여 응급 환자를 이송하고 있었다.
- ⑤ 할아버지께서는 대문 앞에서 ‘이리 오너라’라고 말씀하셨다.

소요 시간
·
·

[정답] 1 ④ 2 ⑤ 3 ④ 4 ③

[1] ④ 5문단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으로 관세 수입이 클수록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2문단에서도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져 해당 국내 생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3문단의 내용을 통해, 종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수입품의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4문단의 내용을 통해, 종량세는 수입품 단위당 일정 금액의 관세를 부과하므로 세액 결정이 용이하고 수입품의 양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부터저가에 대량 수입되는 공산품이나 농수산물물의 수입을 억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6문단의 내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자유 무역 협정이 확대되면서 무역 상대국 간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관세를 통한 국내 산업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6문단의 내용을 통해, 최근 들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조치가 정교화 되거나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⑤ 5문단의 내용을 통해, 수입품의 가격이 비싼 경우 종가세 방식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관세 수입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국의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종가세 방식을 종량세 방식으로 변경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관세 수입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2문단의 내용을 통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국내 생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관세 부과하는 수입품의 가격 상승을 수반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전자 제품은 출시 초기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3, 5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가격이 비싼 제품의 경우 종가세의 관세 부과 방식이 관세 수입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의 내용을 통해, 저가의 공산품이 수입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종량세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량세 방식은 수입품 하나하나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품의 양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④ 수입품에 대한 전수 조사는 수입품의 통관 과정에서 수입 제품 전량을 검수하는 것으로, 수입 통관을 지연하고 통관 비용을 증가시켜 수입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하지만 고가의 수입 전자 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는 수입품의 제조 비용 상승이나 가격 경쟁력 하락과는 무관하다.

{오답 풀이}

① 수입 식음료에 대한 검역 기준이 강화되면,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입 식음료의 국내 시장 반입이 차단될 수 있다.

② 유행에 민감한 제품은 적정 판매 시기를 놓칠 경우 상품 가치가 하락하여 상품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

③ 일반적으로 식자재의 경우 제품의 신선도 유지가 상품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통관이 지연될 경우 상품의 유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⑤ 수입국에서 자국의 기술 표준 준수를 요구할 경우, 수입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추가적인 기술 요소나 제조 과정의 변경이 이루어져 수입품 생산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4] ③ ④ ‘도와’는 어간 ‘돕-’에 어미 ‘-아’가 결합하여 활용된 형태로, 어간의 ‘ㅂ’이 ‘오’로 바뀐 것이므로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용언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파랬다’는 기본형이 ‘파랳다’인데, 어미 ‘-았다’와 결합하면 어간의 ‘ㅎ’이 탈락하고 어미가 변형되어 ‘파랬다’와 같이 활용된다. 따라서 ‘파랳다’는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 용언이다.

② ‘이르러’는 기본형이 ‘이르다’인데, 어미 ‘-어’와 결합하면 ‘이르러’와 같이 활용하므로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용언이다.

④ ‘출동하여’는 기본형이 ‘출동하다’이고 어미 ‘-어’와 결합하면 활용형이 ‘출동하여’가 되므로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용언이다.

⑤ ‘오너라’는 기본형이 ‘오다’로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가 아니라 ‘-너라’와 결합하여 ‘오너라’로 활용한다. 따라서 ‘오다’는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용언이다. (‘너라 불규칙 활용’은 2017년 7월자로 삭제되었다.)

## 1부) 2-4. 보링거의 추상 총동과 감정 이입 총동

### [2018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보링거는 감정 이입 총동과 추상 총동을 양측으로 삼아 미술사 전반을 조망하였다. 그는 인간의 근원적 심리 욕구로서 예술 의욕이 있다고 보았는데, 예술 의욕이 두 가지 심리적 총동인 감정 이입 총동과 추상 총동으로 나누어진다고 언급하였다. 감정 이입 총동이란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유기적인 아름다움에 만족을 발견하는 것으로, 인간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 행복한, 친화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 나타난다고 보았다. 한편, 추상 총동은 인간과 세계가 대립적일 때 형성되는 부조화의 감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예술 의욕이 감정 이입 총동에 의해 표현될 때는 자연주의 미술 양식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예로 그리스 로마 미술을 비롯한 고전주의 미술을 들었다. 반대로 추상 총동에 의해 표현될 때는 사실적 재현이 아닌 추상적인 미술 양식이 성립하는데, 이때 예술은 자연과 대립하게 되며, 이러한 추상 총동은 원시 민족이나 고대 동방 문화에 내재한 조형 원리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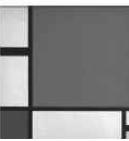
보링거는 추상 총동이 추상 미술의 발생 근거일 뿐 아니라 미술사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추상 총동은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구의 총동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인간이 인간성의 원초적 상태인 외부와의 이원적 대립 상태가 야기하는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이며 정신적 활동이다. 추상 총동은 대상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인간의 잠재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상 총동에서는 자신의 내부에 잠재되어있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고유의 감정이 순수하게 선과 형태, 색채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외계의 사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묘사하는 것에서 벗어난다.

예술사의 진행 과정을 길게 보면 추상 총동과 감정 이입 총동 사이의 끊임없는 대결의 현장을 엿볼 수 있는데, 보링거는 원초적인 상황을 자연과의 화해가 아니라 대립으로 보고 인류 최초의 미술을 추상으로 파악한다. 태초의 인간은 원시 추상의 상태인데, 이는 현대 추상 미술의 뿌리와도 같다. 보링거는 진정한 예술의 시작을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가 아니라 순수 기하학적 형태를 지닌 신석기 시대의 추상 미술로 본다.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에 추상적인 단서가 전연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사실적인 묘사가 주종을 이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보링거는 추상 총동이라는 획기적인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대 추상 미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미술사 전체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추상 총동과 감정 이입 총동의 대립 관계로 파악한 보링거의 관점은 많은 시사점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복잡 다양한 미술사적 현실을 다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 미술에 있어 추상 미술의 기원을 원시 미술에서 찾아볼 때 보링거의 지적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1. 위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대상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② 특정 개념의 의미를 밝혀 서술하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 ④ 두 개념의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설명하고 있다.
  - ⑤ 유추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2. ‘보링거’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0.9em; line-height: 1.2;">                     왼쪽 작품은 몬드리안의 「컴포지션」이라는 추상 회화이다. 선과 다양한 네모를 기본으로 한 그의 작품은 직선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의 재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div> </div>
[B]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0.9em; line-height: 1.2;">                     왼쪽 작품은 풍경 속에 있는 농부들의 모습을 주제로 한 작품을 여럿 남긴 밀레의 「만종」으로, 자연주의 미술 작품이다. 황혼녘에 한 남자와 여자가 삼종 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담은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이 작품에서 화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대지는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어 자연과 인간의 밀착된 관계를 드러낸다.                 </div> </div>

- ① [B]와 달리 [A]는 추상 충동에 의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B]와 달리 [A]는 인간 내면의 예술 의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A]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고유의 감정이 순수하게 선과 형태, 색채로 나타난 것이다.
- ④ [A]는 외계의 사물을 ‘보이는 대로’ 모사하는 것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A]와 달리 [B]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친화 관계를 맺게 될 때 나타나는 감정 이입 충동을 바탕으로 한다.

3. 윗글에 드러난 ‘보링거’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에게 태초의 원초적인 상황은 자연과의 대립을 바탕으로 한다고 보았다.
- ② 미술사를 추상 충동과 감정 이입 충동의 대립 관계에 바탕을 두고 파악하였다.
- ③ 추상 충동은 인간과 세계가 대립적일 때 형성되는 부조화의 감정이라고 보았다.
- ④ 추상 충동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현대 추상 미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 ⑤ 사실적인 자연 묘사가 주종을 이루는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를 진정한 예술의 시작으로 보았다.

4.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어머니를 따라 시장 구경을 갔다.
- ② 그 친구의 숨씨를 도저히 따를 수가 없다.
- ③ 우리 집 강아지는 아버지를 유난히 따른다.
- ④ 새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 ⑤ 포상 규정에 따라 그에게 봉사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소요 시간
:

[정답] 1 ⑤ 2 ② 3 ⑤ 4 ④

[1] ⑤ 유추(類推)란, '두 개의 사물이 몇몇 성질이나 관계를 공통으로 가지며, 또 한쪽의 사물이 어떤 성질, 또는 관계를 가질 경우, 다른 사물도 그와 같은 성질 또는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추리하는 일'을 일컫는다. 이 글에서는 유추의 방식을 드러내면서 설명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① '따라서 예술 의욕이 감정 이입 총동에 의해 표현될 때는 자연주의 미술 양식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예로 그리스 로마 미술을 비롯한 고전주의 미술을 들었다.'라는 문장에서 추리할 수 있다.

② 이 글에서는 '감정 이입 총동', '추상 총동'의 의미를 밝혀 서술하고 있다.

③ '태초의 인간은 원시 추상의 상태인데, 이는 현대 추상 미술의 뿌리와도 같다.'라는 구절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④ 이 글에서는 '추상 총동'과 '감정 이입 총동'의 차이에 관한 보링거의 설명을 소개하고 있다.

[2] ② [A]와 [B] 모두 인간 내면의 예술 의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와 달리 [A]는 인간 내면의 예술 의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A]는 추상 총동에 따른 그림이고, [B]는 감정 이입 총동에 따른 그림이다.

③, ④ 이 글의 설명에 의하면, 추상 총동에서는 자신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고유의 감정이 순수하게 선과 형태, 색채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외계의 사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묘사하는 것에서 벗어난다.

⑤ [B]는 감정 이입 총동에 의한 그림인데, 감정 이입 총동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친화 관계를 맺게 될 때 나타난다.

[3] ⑤ 보링거는 진정한 예술의 시작을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가 아니라 순수 기하학적 형태를 지닌 신석기 시대의 추상 미술로 보았다.

① 3문단에 의하면, 보링거는 원초적인 상황을 자연과의 화해가 아니라 대립으로 보았다.

② 4문단에 의하면, 보링거는 미술사 전체를 단순화하여 추상 총동과 감정 이입 총동의 대립 관계로 파악하였다.

③ 1문단에 의하면, 감정 이입 총동은 인간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 행복한, 친화적 관계를 맺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인 반면, 추상 총동은 인간과 세계가 대립적일 때 형성되는 부조화의 감정에 해당한다.

④ 4문단에 의하면, 보링거는 추상 총동이라는 획기적인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대 추상 미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4] ④ ㉠의 '따르다'는 '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난다.'라는 뜻을 갖는다. ㉡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①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② '앞선 것을 좇아 같은 수준에 이르다.'라는 뜻을 갖는다.

③ '좋아하거나 존경하여 가까이 좇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⑤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라는 뜻을 지닌다.



## 1부) 2-5. 진품과 위조품

### [2019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같은 예술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회화의 경우에는 작품의 유일성에 관한 우리의 의식이 예술 경험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음악의 경우에는 그런 의식은 중요하지 않다. 음악에도 작곡가가 직접 작성한 악보처럼 유일무이한 대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음악에 대한 우리의 예술적 경험은 기본적으로 연주를 요구하기에 악보는 예술적 감상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음악에서는 악보라는 유형이 있고 그것의 연주라는 개별 사례가 구분이 되는 예술이지만, 회화는 처음부터 개별 사례만 있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유일성이 문제가 되기에 위조품이 존재한다.

미술 작품의 위조는 수집가, 미술관 큐레이터, 예술사자들에게 특정 작품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겨 준다. 진품인 미술 작품과 그것의 완벽해 보이는 복제품이 나란히 있다고 해 보자. 단순히 보기만 해서는 두 그림 사이에 어떤 예술적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확대경이나 현 미경을 이용하면 그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 또 누가 보는지도 중요한데, 평범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이는 그림도 훈련을 거친 전문가에게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진품과 위조품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해 보자. 그럴 때도 진품이 위조품보다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위조에는 진품을 똑같이 그려 복제품을 만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명 예술가의 양식을 모방하는 것도 있다.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판메이헤런은 17세기 네덜란드의 위대한 화가 페르메이르의 양식을 모방한 그림들을 그렸고 그 그림들은 페르메이르의 작품으로 판매되었다. 판메이헤런의 작품들은 결국 가짜임이 들통났는데, 그의 작품들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했던 사람들의 태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이런 태도 변화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①진품과 위조품 사이에는 예술적 가치에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진품을 위조품보다 더 높이 치는 것은 순전히 단일본이어야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는 위조품보다 진품을 더 강조하는 것은 유일본을 즐겨 소장하는 예술품 수집가의 허세일 수도 있고, 위대한 미술가가 직접 손을 댔고 예술적 노력을 기울인 대상이라는 골동품으로서의 매력과 관련 있을 수

도 있다. 그러나 가격, 허세, 골동품으로서의 가치는 예술적 가치와는 관련이 없다. 그것은 희귀성, 경쟁심, 역사적 관심의 문제일 뿐이다. 어쩌면 잘 만들어진 위조품이 정작 원본보다 예술적인 의미에서는 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에 반대하는 논증들이 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예술가가 성취한 독창성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유명 작가의 작품과 구분될 수 없는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명 작가 자신이 성취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어떤 위조 작가가 유명 작가가 화가로서 가진 기능적 기술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유명 작가의 성취는 기능인으로서의 그의 기술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 위조 작가는 독창적일 수 없기에 자신의 위조술만으로는 위대한 화가가 될 수는 없다. 유명 예술가의 양식을 모방한 위조의 경우에 위조품의 예술적 가치가 진품보다 더 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위조 작가는 어떤 양식을 창조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베끼는 것이 될 것이며, 우리는 모방 작가의 기술보다는 독창적 예술가의 창의성을 더 가치 있게 보는 경향이 있다. 위조품의 예술적 가치에 반대하는 또 다른 논증은 위조품은 그 출처에 대해서 감상자를 속이려는 시도를 포함하기에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정직한 수단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에 반대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 위조품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증들은 위조품의 예술적 가치에 반대하는 논증이 아니라 모방 작가의 예술적 가치에 반대하는 논증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모방 작가가 기막힌 위조품을 그렸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독창적 예술인과 동등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위조품을 살펴봄으로써 원본의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거나 양식에 따라 그런 위조품의 예술적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작품 제작의 부정직성은 그 작품의 감상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뛰어난 위조품이 속임수를 포함하여 그 속임수를 의도한 작가가 도덕적으로 비난받더라도 그 작품은 여전히 예술 작품으로서 인상적일 수 있다.

1. 밑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음악 연주와 달리 왜 미술 작품에서는 위조품이 문제가 될까?
  - ② 모방 작가가 원본 작가보다 예술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③ 모방 작가가 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작품에 대한 예술적 평가가 바뀌는가?
  - ④ 전문가라도 단순히 보기만 해서는 진품과 위조품의 차이를 구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⑤ 자격을 갖춘 충분한 수의 전문가들이 두 그림을 식별할 수 없다면 예술적 가치를 똑같이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3.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판 메이헤런은 위조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의 페르메이르 모방 작품들은 대부분 위조품임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만큼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아서 판 메이헤런은 페르메이르 모방 작품들을 직접 그림으로써 자기가 그린 것임을 입증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㉔당시의 전문가들은 이 작품의 뛰어난 예술성에 감탄하였다.

- ① 판 메이헤런은 독창적 예술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 ② 모방 작가의 뛰어난 기능적 기술도 칭찬받을 수 있다.
- ③ 작품 제작의 부정직성은 그 작품의 감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④ 양식에 따라 그린 위조품이라고 하더라도 예술적 가치를 논할 수 있다.
- ⑤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는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 예술적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

2. ㉔의 입장을 가진 사람이 동의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 ① 음악 작품에는 창의성을 말할 수 없다.
  - ② 완벽한 복제품이 아닌 위조품은 있을 수 없다.
  - ③ 진품보다 예술적으로 뛰어난 위조품은 있을 수 없다.
  - ④ 미술 작품의 위조는 개별 사례 작품을 위조한 경우만 있다.
  - ⑤ 희귀성, 경쟁심, 역사적 관심은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관련이 없다.

소요 시간
·
·

[정답] 1 ④ 2 ⑤ 3 ①

[1] ④ 2문단에 평범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이는 그림도 연습과 훈련을 거친 전문가에게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없다.

- ① 1문단에 음악 연주와 달리 미술 작품에서 유일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이 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다.
- ② 4문단에 모방 작가가 원본 작가보다 예술적인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이 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다.
- ③ 5문단에서 모방 작가의 가치와 그의 작품의 가치를 구분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이 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다.
- ⑤ 2문단 첫 두 문장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3문단에서 진품과 위조품 사이에 예술적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살펴보고 4문단에서는 예술적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이 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다.

[2] ⑤ 3문단에서 '가격, 허세, 골동품으로서의 가치는 예술적 가치와는 관련이 없다. 그것은 희귀성, 경쟁심, 역사적 관심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에게 희귀성, 경쟁심, 역사적 관심은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상관없음을 알 수 있다.

- ① 1문단에서 음악은 미술과 달리 유일성이 문제가 안 된다고는 했지만, 창의성은 유일성과 별개의 개념이다. 음악 작품에서 창의성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이는 ㉠의 태도를 취하든 안 취하든 마찬가지이다.
- ② 2문단에서 위조의 방법으로 똑같이 그린 복제품도 있고 유명 예술가의 양식을 모방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완벽한 복제품이 아닌 위조품은 있을 수 없음은 ㉠의 태도를 취하든 안 취하든 동의하지 않는 진술이다.
- ③ 3문단에서 '어쩌면 잘 만들어진 위조품이 정작 원본보다 예술적인 의미에서는 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에게 진품보다 예술적으로 뛰어난 위

조품도 있을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위조의 방법으로 똑같이 그린 복제품도 있고 유명 예술가의 양식을 모방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똑같이 그리는 복제품은 1문단에서 말한 개별 사례를 위조하는 경우이고, 양식을 모방하는 방법은 사례가 아니라 양식을 위조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미술 작품의 위조에 개별 사례 작품을 위조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므로 ㉠의 태도를 취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3] ① 5문단에서 '모방 작가가 기막힌 위조품을 그렸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독창적 예술인과 동등하게 여기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을 비롯하여 누구든 모방 작가인 판 메이헤런을 독창적 예술인으로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② 4문단에서 '어떤 위조 작가가 유명 작가가 화가로서 가진 기능적 기술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이라고 말했고, 모방 작품을 높이 평가한 ㉠은 거기에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은 모방 작가의 뛰어난 기능적 기술도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③ 5문단에서 '작품 제작의 부정직성은 그 작품의 감상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모방 작품을 높이 평가한 ㉠은 거기에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은 작품 제작의 부정직성은 그 작품의 감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④ 판 메이헤런은 2문단에서 말한 대로 양식에 따라 위조품을 그리는 작가이다. 그러므로 모방 작품을 높이 평가한 ㉠은 그런 작가라고 하더라도 예술적 가치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⑤ 5문단에서 '뛰어난 위조품이 속임수를 포함하여 그 속임수를 의도한 작가가 도덕적으로 비난받더라도 그 작품은 여전히 예술 작품으로서 인상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은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는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 예술적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 1부) 3-1. 파슨스의 기능적 필수 조건과 종교 조직의 유지

#### [2019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종교에 관한 연구는, 초기에는 종교의 역사적, 유형적 측면들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관련 연구에 점차적으로 사회학 이론이 도입되면서 종교 조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당시 사회학계를 풍미하던 파슨스의 기능 이론이 종교 연구에 도입되었다. 파슨스는 모든 사회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능적 필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파슨스의 이론이 일종의 사회 조직인 종교 조직을 연구하는 데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이다.

파슨스는 모든 사회 조직이, 유기체와 같은 사회 속에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응(A)', ㉡'목표 달성(G)', ㉢'통합(I)', ㉣'잠재성(L)'의 4가지 기능적 필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적응'은 사회 조직이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이 지속적으로 조달되어 조직 내에서 적절히 쓰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목표 달성'은 사회 조직이 조직 내의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적응'의 과정을 통해 조달된 자원들을 동원하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통합'은 사회 조직 내의 각 체계가 잘 통제되고 안정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 조직 내 구성원들이 협동과 유대를 통해 조직 내적으로 형성된 제도나 질서를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잠재성'은 사회 조직 내의 고유하고 문화적인 가치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기화(動機化)\*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긴장과 갈등을 극복하고 조직의 가치를 유지해 가는 것이 모두 잠재성에 해당된다.

이러한 파슨스의 기능적 필수 조건은 종교 조직에 적용되어 종교 조직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우선 적응은 종교 조직에서 주로 신도 모집으로 이해되었다. 종교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인적 자원의 조달이 가장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 조직은 비신자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제시하고 그들이 종교 조직에 참여하도록 하는 선교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에는 종교 조직에서도 세속적인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개발하기도 하며, 이와 관련한 종교 조직 간의 상호 경쟁이 더욱 복잡해지기도 한다.

다음으로 목표 달성은 종교 조직에서 흔히 신도 교육과 훈련의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종교 조직은 오래전부터 설정되어 왔던 종교적 신념과 목표를 신도들에게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리\* 교육과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종교 조직이 오랜 시간 유지되다 보면 본래의 단순했던 종교적 목표가 분화되거나 추가되기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목표가 종교 조직의 본래 목표와 멀어지거나 본래의 종교적 목표를 대신하는 목표 전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예컨대 신에 대한 독실한 신앙을 얻고 보람된 삶을 살고자 모였지만 실제로는 종교 외적인 세속적 문제에 휩쓸리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결국 종교 조직들은 부단히 신도들에게 목표 의식을 강조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본래의 목표에서 다소 벗어난 것이지만 사회적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신도들을 교육하거나 훈련시키기도 한다.

세 번째, 통합은 종교 조직에서 주로 적절한 역할 분담으로 나타난다. 즉 상이한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종교 조직은 구성원 간에 갈등이 없는 일사불란함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신도들 각자의 역할이 명확해져야 하고 그 역할들이 일정한 형식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종교 조직에서는 역할 분담을 위해 경전 편집, 교리화, 제의화 등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것들은 종교 조직 내부의 권위 체계에 의해 특정한 직책으로 제도화된다.

끝으로 잠재성은 종교 조직에서 흔히 동기화로 이해된다. 종교 조직은 무엇보다도 제례, 의식, 기도 등을 통한 해당 종교의 창시자나 신에 대한 근본적인 종교 경험을 바탕으로 성립된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 경험이 새롭게 해석되거나 현실에서 다시 체험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세속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신도들이 일상적 세속 생활과 성스러운 종교 생활을 적절히 조화시키며 살아가게 하는 다양한 형식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일상생활을 과감히 무시하고 영적 생활과 명상 등을 강조할 수도 있으며 세속적 일상생활 자체를 성스러움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즉 신도들이 종교 조직 안에 존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 부여가 필수적

인 것이다.

결국 종교 조직 역시 파슨스가 주장했던 적응, 목표 달성, 통합, 잠재성의 네 가지 기능적 필요 조건이 종교 조직의 내외부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원활하게 수행될 때 사회 속에서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동기화: 동기 부여.

\* 교리: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

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종교 조직에 대한 사회학 이론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밝히고 있다.
- ② 종교 조직과 사회적 환경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 ③ 파슨스의 기능 이론을 통해 종교 조직이 유지되는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사회 통합을 위한 종교 조직의 역할을 파슨스의 기능 이론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 ⑤ 파슨스의 기능 이론을 중심으로 종교 조직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 ㉠~㉣과 관련한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 ○○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자국 내 부족한 의사의 수를 충원하고자 전문 의료인에 대한 이민 장려 정책을 실시하였다.
- ② ㉡: ○○국은 자국의 자유 무역 정책, 낮은 세율, 기업 활동의 자유 등을 광고하며 다른 나라의 경제적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 ③ ㉢: ○○국 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소망인 경제 성장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경제 발전 계획을 시행한 결과, ○○국을 세계적인 부국으로 만들었다.
- ④ ㉣: 다른 언어와 종교를 지닌 이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국은 이주민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중앙 집권적 통치 제도를 지방 분권적 통치 제도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 ⑤ ㉤: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국은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을 강조하며 이를 지방 자치와 주민 자치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하였다.

3.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현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중국 후한(後漢) 시대에는 관료의 횡포가 심해지고, 천재, 질병 등이 잦아 민중이 빈궁해졌고 유민(流民)이 크게 증가했다. 이 시기 우길(于吉)은 장수(長壽)를 설파하는 「태평청령서」를 저술하였는데 장각(張角)은 우길의 가르침과 노자 사상 등을 종합해 ‘태평도(太平道)’라는 종교를 열었다. 장각은 죄과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통한 태평 세대를 태평도의 근본적 목표로 설정하고, 포교를 위해 제자들을 파견하였다. 그 결과, 태평도는 하급 관리와 빈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장각은 전국적으로 36개의 교단 조직을 편성하였는데, 각 조직은 ‘방(方)’이라는 장군에 의해 통솔되었다. 후한 왕조는 태평도를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신도의 단결이 공고해지고 반정부적 성향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장각은 한나라를 멸하고 자신이 제위에 오른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신도들을 규합하여 황건적(黃巾賊)의 난을 일으켰다. 하지만 장각이 죽고 황건적의 난이 진압되면서 태평도는 급격히 쇠퇴하였다.

- ① 장각은 선교 활동을 통해 하급 관리와 빈민들을 태평도로 유치하여 종교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군.
- ② 죄과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통해 얻게 되는 태평 세대는 태평도 신도들에게 가치 있는 삶으로 인식되었겠군.
- ③ 태평도 신자들이 황건적의 난을 일으킨 것은 일상적 세속 생활로부터 성스러운 종교 생활을 지키려 한 것이군.
- ④ 장각이 한나라를 멸하고 제위에 오르려고 한 것은 태평도의 본래 목표에서 다소 벗어난 새로운 사회적 목표라고 할 수 있군.
- ⑤ 장각이 교단 조직을 편성한 후, 이를 ‘방’이라는 장군을 통해 통솔하게 한 것은 종교 조직 내의 권위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소요 시간
⋮

[정답] 1 ③ 2 ④ 3 ③

[1] ③ 이 글은 파슨스의 기능 이론 중 사회 조직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기능적 필수 요건에 대해 설명한 후, 이를 종교 조직에 적용하여 종교 조직이 유지되는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① 이 글은 사회학 이론 중 파슨스의 기능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종교 조직에 적용하고 있지만, 종교 조직에 대한 사회학 이론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밝힌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글에는 종교 조직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종교 조직과 사회적 환경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이 글은 종교 조직이 사회 속에서 존속하기 위한 조건을 파슨스의 기능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지만, 사회 통합을 위한 종교 조직의 역할에 대해 소개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이 글은 사회학 이론 중 파슨스의 기능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종교 조직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파슨스의 기능 이론을 통해 종교 조직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2] ④ 2문단에 따르면, '통합'은 사회 조직 내의 각 체계가 잘 통제되고 안정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특히 조직 구성원 간의 협동과 유대를 통해 조직 내적인 틀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맥락에서 다른 언어와 종교를 지닌 이민자가 급증한 ○○국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중앙 집권적 통치 제도를 지방 분권적 통치 제도로 개편하려 한 것은 조직의 일관성과 내적인 틀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②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에 전문 의료인을 정착하게 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국가라는 사회 조직의 유지를 위한 자원을 조달하는 것이므로 '적응'의 구체적 사례로 볼 수 있다.

③ 국가가 국민 대다수의 소망인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경제 발전 계획을 시행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였으므로 '목표 달성'에 부

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⑤ '잠재성'은 사회 조직 내의 고유한 가치를 동기화하고 제도화하여 지속하는 것으로, ○○국 조직 내 가치인 자유의 보장과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국민과 밀접한 지방 자치와 주민 자치에서 실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잠재성'과 관련된 사례로 볼 수 있다.

[3] ③ <보기>에 따르면, 태평도의 근본적 목표는 태평 세대를 얻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장각이 황건적의 난을 일으킨 것은 한나라를 멸하고 자신이 제위에 오르기 위해서이므로 태평도의 본래적 목표에 사회적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목표가 추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황건적의 난을 일삼적 세속 생활로부터 성스러운 종교 생활을 지키려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 따르면, 종교 조직은 조직을 구성하는 인적 자원인 신도를 모집함으로써 조직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장각이 제자들을 파견하여 포교 활동을 하여 하급 관리와 빈민들을 태평도의 신도로 유치한 것은 곧 종교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장각은 죄과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통한 태평 세대를 태평도의 근본적 목표로 설정하고 포교를 위해 제자들을 파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문단에서 종교 조직은 비신자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제시하고 그들이 종교 조직에 참여하도록 하는 선교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태평도 신도들에게 태평 세대는 가치 있는 삶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종교 조직은 상황에 따라 본래의 목표에서는 다소 벗어난 것이지만 사회적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신도를 교육하고 훈련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기>에서 태평도의 근본적 목표는 태평 세대를 얻는 것이므로 한나라를 멸하고 제위에 오르려는 장각의 목표는 태평도의 본래 목표에서 다소 벗어난 새로운 사회적 목표라고 볼 수 있다.

⑤ 장각이 전국적으로 36개의 교단 조직을 편성하고, 각 조직을 '방'이라는 장군을 통해 통솔하게 한 것은, 5문단에 나타난 종교 조직의 명확한 역할 분담에 해당하며 이는 종교 조직의 권위 체계에 의해 제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1부) 3-2.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

## [2017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일정한 신분 관계에 있는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상속 재산에 대한 각자의 배당 비율을 일컫는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지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유언에 따라 상속분이 나누어진다.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정 상속분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정 상속분에 따르면, 형제자매처럼 같은 상속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우,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의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게 된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일정액의 기여분을 더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여분은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 재산에서 기여분을 빼고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지게 된다.

‘단순 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에 대한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단순 승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모두 승계되어 상속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되는 경우이다.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에는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포함된다. 원래 빚을 갚아야 할 피상속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에 민법에서는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먼저 갚은 후에 나머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을 재산과 빚의 규모를 가능하기 어려울 때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상속 포기’는 상속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빚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때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의 상속 포기 신고가 승인되면 그 사람은 상속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앞 순위의 단독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빚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고, 공동 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된 상속분이 나머지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 순으로 정해지며,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된다. 상속 자격을 가지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빚의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그렇다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의 신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일까? 만약 피상속인에게 재산은 없고 빚만 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상속 포기 약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 법에 따르면 그럴 수는 없다.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속의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 포기 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 다만 상속 순위가 뒤인 사람이 앞인 사람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같은 상속 순위 내에서도 상속 포기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피상속인의 빚이 많음을 알지 못해서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경우에는 특별 한정 승인 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음을 안 이후로 3개월 내에 다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특별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으면 된다.

- \* 직계 비속: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룸.
- \* 직계 존속: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룸.
- \* 방계 혈족: 같은 시조(始祖)에서 갈라져 나간 혈족. 백부모, 숙부모, 생질, 형제자매 등을 이룸.

1.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배당 비율을 유언을 통해 지정할 수 있다.
  - ② 상속의 순위가 앞인 사람보다 상속의 순위가 뒤인 사람이 먼저 상속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공동 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포기된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 ④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빚이 적을 것이 확실할 때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⑤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신고 기간이 지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의 취지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② 상속분에 대한 공동 상속인들의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③ 법에 따른 상속분 배분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④ 상속인의 재산과 관련한 피상속인의 유언을 존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⑤ 상속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 위글을 근거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준우와 현우 형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형제의 아버지가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1억 원의 재산을 남기셨고, 이 재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아버지는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4주 후, 두 형제는 아버지가 은행에 갚아야 할 2억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우편물을 통해 알게 되었다.

- ① 두 형제가 우편물을 읽은 직후에 상속 포기를 한다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아버지의 재산과 빚이 승계될 수 있겠군.
- ② 두 형제가 우편물을 읽기 직전에 한정 승인을 했다면, 두 형제는 합쳐서 1억 원의 한도에 서만 아버지의 빚을 갚으면 되겠군.
- ③ 두 형제가 우편물을 읽은 후에도 상속에 대한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두 형제는 합쳐서 1억 원의 손해를 보겠군.
- ④ 두 형제가 상속 포기 약정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했다면,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재산과 빚이 승계되지 않을 수 있겠군.
- ⑤ 두 형제가 상속을 단순 승인한 후에 우편물을 읽고 빚에 대해 알았다면, 빚이 있음을 안 이후로 3개월 내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겠군.

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한국인 씨’ 가족들에게 상속될 금액을 각각 바르게 나타낸 것은?

— < 보 기 > —

한국인 씨는 암에 걸린 아버지를 지극히 간호했지만,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숨을 거두었으며, 상속에 관한 유언은 없었다. 아버지는 빚이 없이 8천만 원의 재산만 남겼고, 남은 가족은 한국인 씨와 한국인 씨의 어머니, 한국인 씨의 오빠이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법정 상속분으로 나누되, 그동안 한국인 씨가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간병해 준 것을 고맙게 여겨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1천만 원의 기여분을 한국인 씨에게 주기로 협의했다.

	한국인 씨	어머니	오빠
①	2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②	3천만 원	2천5백만 원	2천 5백만 원
③	3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④	4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⑤	4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소요 시간
:
.

[정답] 1 ④ 2 ⑤ 3 ④ 4 ③

[1] ④ 상속 포기는 상속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피 상속인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빚보다 적을 것이 확실 한 때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문단).

① 상속분(상속 재산에 대한 각자의 배당 비율)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1문단).

② 상속 순위가 뒤인 사람이 상속 순위가 앞인 사람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4문단).

③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의 상속 포기 신고가 승인되면 그 사람은 상속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앞 순위의 단독 상속인 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빚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고, 공동 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된 상속분이 나머지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3문단).

⑤ 상속의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간이 지나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4문단). 즉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신고 기간이 지나면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모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2] ⑤ 단순 승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모두 승계되어 상속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구제하기 위해 민법에서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상속의 단순 승인이 이루어져 상속인에게 피 상속인의 빚이 모두 승계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상속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① 피상속인에게 상속을 받는 상속인과 관련된 법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다.

② 단순 승인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속분에 대한 공동 상속인들의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다.

③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 제도가 상속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법에 따른 상속분 배분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다.

④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인의 재산과 관련한 피상속인의 유언을 존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다.

[3] ④ 두 형제가 상속 포기 약정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했다 하더라도 그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두 형제의 상속에 관한 권리는 유지된다. 그러므로 두 형제가 상속에 대한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재산과 빚이 모두 승계될 수 있다.

① 두 형제가 우편물을 읽은 직후에 상속 포기를 한다면, 두 형제는 상속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아버지의 재산과 빚은 두 형제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대신 아버지의 재산과 빚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만약 상속 자격을 가지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아버지의 재산 과 빚의 청산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② 두 형제가 우편물을 읽기 직전에 한정 승인을 했다면, 두 형제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인 1억 원에 대해서만 빚을 갚으면 된다.

③ 두 형제가 우편물을 읽은 후에도 상속에 대한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다면,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재산 1억 원과 빚 2억 원이 승계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 형제는 합쳐서 1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⑤ 두 형제가 단순 승인을 하여 아버지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후에 우편물을 읽고 빚에 대해 알았다면, 특별 한정 승인 제도에 의해 빚이 있음을 안 이후로 3개월 내에 다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

[4] ③ 우선 8천만 원에서 한국인 씨에게 1천만 원의 기여분을 주기로 했으므로 나머지 7천만 원을 한국인 씨 1, 어머니 1.5, 오빠 1의 비율로 나누게 된다. 즉 한국인 씨 2천만 원, 어머니 3천만 원, 오빠 2천만 원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한국인 씨는 기여 분 1천만 원을 받았으므로 아버지의 재산 8천만 원은 한국인 씨 3천만 원, 어머니 3천만 원, 오빠 2천만 원으로 나뉘어 상속된다.



## 1부) 3-2. 조광유리

### [2017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투명한 유리창은 외부의 빛을 그대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강렬한 여름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서 실내로 들어오는 경우 실내의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 커튼을 이용해서 실내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커튼에 의해 흡수된 빛은 커튼의 온도를 올리고 이는 다시 방의 온도를 상승시키므로, 방 전체의 열 출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빛 차단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커튼 역할을 하는 유리창의 존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빛을 계속해서 차단하는 유리창은 유리창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투명 상태와 불투명 상태 사이에서 자유롭게 변환이 가능한 조광 유리가 고안되었다.

조광 유리를 만드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전기적 변환 방식으로, 그중에서도 2장의 투명 전극 사이를 용액으로 채우고 전압을 가해 용액의 색을 변환시키는 용액형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방식의 기본 원리는 전자를 주고받음으로써 광학적 성질이 변화하는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투명 전극 사이에 채워진 용액에는 각각 환원 착색제와 산화 착색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종류의 물질이 용해되어 있다. 환원 착색제는 여분의 전자를 받은 상태에서, 산화 착색제는 전자를 뺀 상태에서 빨간색과 초록색 빛을 흡수하는 물질이다. 전압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은 모두 투명한 상태로 유지된다. 2장의 투명 전극에 전압을 가하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여분의 전자를 받은 환원 착색제와 전자를 빼앗긴 산화 착색제는 빨간색 빛과 초록색 빛의 대부분을 흡수한다. 이때 푸른색 빛의 일부만이 유리를 통과하게 되면서 유리는 푸른색을 띤 불투명한 상태로 보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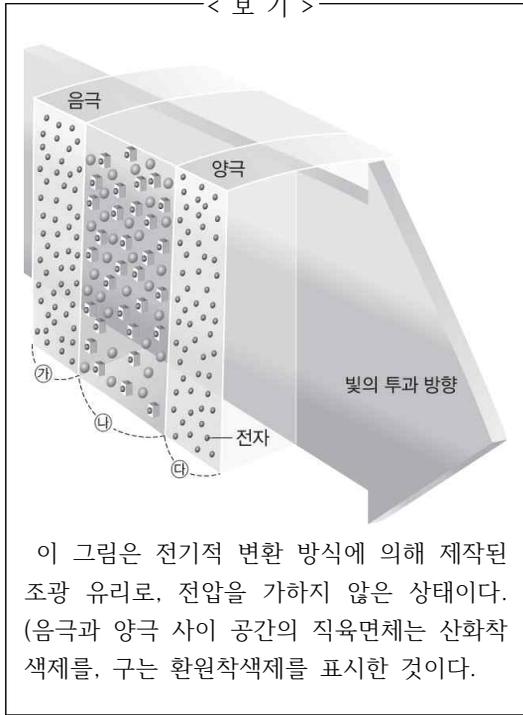
전기적 변환 방식으로 제작한 조광 유리를 실제 건물에 설치하면, 일반 투명 유리를 설치한 건물에 비해 냉방에 드는 에너지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전압의 세기와 투명도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제작 및 유지 비용 측면에서 비경제적이라는 점, 유리가 클수록 투명 상태와 불투명 상태 간의 전환에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이 방식에 의한 조광 유리는 외부의 모든 빛을 흡수하기 때문

에 불투명화에 사용되는 용액의 온도가 상승하고, 그것이 실내 열로 다시 방사된다는 단점이 있다.

< [A] 그렇다면 유리창을 거울로 변환시켜 빛을 반사시킴으로써 실내로 유입되는 열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과제와 관련하여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방식이 수소 가스를 주로 이용하는 가스 변환 방식이다. 기존의 가스 변환 방식은 2장의 유리 사이의 공간에 수소 가스를 충전하여 유리의 상태를 변환시키는 방식으로, 유리 2장의 두께로 인해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새로운 가스 변환 방식에서는 1 장의 유리 표면에 마그네슘과 이트륨이 혼합된 두께 약 40nm 정도의 박막을 입히고 여기에 다시 팔라듐 박막과 얇은 투명 시트를 차례로 덧씌운다. 마그네슘과 이트륨의 혼합 박막은 금속 상태에서 거울의 기능을 하여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막과 얇은 투명 시트 사이에는 평균 0.1mm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이 틈새로 공기 중의 수분을 전기 분해함으로써 발생된 수소 가스를 통과시키면 박막이 투명해진다. 그리고 수소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박막과 투명 시트 사이의 수소가 대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수증기가 되어 빠져나가기 때문에 박막은 금속 상태로 돌아간다. 이 조광 유리는 공기 중의 수분을 이용하여 발생시킨 소량의 수소만으로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 적이며, 자동차 유리와 같은 실용적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다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가스 변환 방식은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 ② 조광 유리의 제작 방식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전기적 변환 방식이다.
  - ③ 전기적 변환 방식에 의해 제작된 조광 유리는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 ④ 조광 유리는 유리창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빛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 ⑤ 전기적 변환 방식에 의해 제작된 조광 유리는 외부의 빛이 열로 전환되는 것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

2. 뒷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압을 가하면 ㉑의 전자는 ㉓의 용액을 지나 ㉒로 이동한다.
- ② 빛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㉓에 채워진 용액의 온도는 상승한다.
- ③ 전자의 교환 과정에서 ㉓에 채워진 용액 속의 물질은 광학적 성질이 변화하게 된다.
- ④ 전압을 가하면 ㉓의 산화 착색제는 전자를 빼앗기고, 환원 착색제는 전자를 가지게 된다.
- ⑤ 전극에 가하는 전압의 크기가 클수록 빨간색과 초록색 빛이 ㉓의 용액에 흡수되는 비율이 낮아진다.

3. [A]와 <보기>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이트륨에 수소를 흡착시켜 온도와 압력을 제어하면 금속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진행된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다. 두께 500nm의 이트륨 박막이 고농도의 수소와 만났을 때는 빛을 완전히 투과시키는 특성을 보였던 것이다.
- 이트륨을 비롯한 희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마그네슘 합금 박막의 출현으로 가스 변환 방식에 의한 조광 유리 제작의 경제성이 상승했다. 수소와 만나 금속 상태가 약화되고 빛의 투과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마그네슘 박막과 이트륨 박막은 공통점을 지닌다.
- 팔라듐 코팅은 일반적으로 기체의 흡수와 탈착을 촉진하는 촉매의 역할을 하며, 금속의 산화를 방지하기도 한다. 또한 그 투명성으로 인해 투명 전도성 필름의 재료로도 사용된다.

- ① 이트륨이 새로운 가스 변환 방식에 의한 조광 유리 제작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유는 수소와 만나 빛을 투과시키는 특성 때문이다.
- ② 마그네슘과 이트륨의 혼합 박막을 사용한 조광 유리에는 고농도의 수소 공급을 위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양 이상의 추가적인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
- ③ 수소 가스는 이트륨과 마그네슘의 금속 상태를 완화하여 빛의 투과성을 높이기 위해 주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팔라듐 박막이 마그네슘과 이트륨의 혼합 박막에 덧씌워지는 이유는 수소의 탈착을 촉진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 ⑤ 팔라듐 박막은 마그네슘과 이트륨의 혼합 박막과 투명 시트 사이의 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속 박막의 산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소요 시간
·
·

[정답] 1 ① 2 ⑤ 3 ②

[1] ① 4문단에 따르면, 가스 변환 방식에 의한 조광 유리 제작은 2장의 유리를 사용하는 기존의 방식과 1장의 유리에 박막을 덧씌우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뉜다. 따라서 가스 변환 방식은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 나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조광 유리를 만드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전기적 변환 방식이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전기적 변환 방식에 의해 제작된 조광 유리는 복잡한 구조로 인해 제작 및 유지 비용의 측면에서 비경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④ 1문단에 따르면, 조광 유리는 빛을 계속해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 상태와 불투명 상태에서 자유로운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창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투명 상태) 필요에 따라 빛을 차단(불투명 상태)할 수 있다.

⑤ 3문단에 따르면, 전기적 변환 방식에 의해 제작된 조광 유리는 외부의 모든 빛을 흡수하여 그 중 일부를 실내 열로 다시 방사한다. 따라서 전기적 변환 방식에 의해 제작된 조광 유리가 외부의 빛이 열로 전환되는 것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2] ⑤ 전극에 가하는 전압의 크기는 조광 유리의 불투명도에 비례한다. 전압을 가하면 빨간색과 초록색 빛이 용액에 흡수되어 유리는 푸른색을 띤 불투명한 상태로 전환되는데, 가해지는 전압의 크기가 클수록 빨간색과 초록색 빛이 용액에 흡수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유리의 투명도는 낮아진다.

① 2문단에 따르면, 2장의 투명 전극에 전압을 가하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② 3문단에 따르면, 전기적 변환 방식으로 제작된 조광 유리는 외부의 모든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불투명화에 사용되는 용액의 온도가 상승한다.

③ 2문단에 따르면, 용액형 방식에 의해 제작된 조광 유리의 투명 전극 사이는 환원 착색제와 산화 착색제가 용해된 용액으로 채워져 있다. 이들

은 모두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광학적 성질이 변화하는 물질이다.

④ 2문단에서 투명 전극 사이에 채워진 환원 착색제는 여분의 전자를 받은 상태에서, 산화 착색제는 전자를 뺏긴 상태에서 빨간색과 초록색 빛을 흡수한다고 했다. 따라서 <보기> 그림의 조광 유리에 전압을 가하면 산화 착색제는 전자를 잃고 환원 착색제는 전자를 가지게 될 것이다.

[3] ② [A]를 통해 새로운 가스 변환 방식에 의해 제작된 조광 유리는 공기 중의 수분을 이용하여 발생시킨 소량의 수소만으로도 전환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투명화를 위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양 이상의 추가적인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기존의 가스 변환 방식에서는 2장의 유리 사이에 가스를 충전하여 투명도를 조절했다. 그러나 이트륨과 같이 수소와 만나 빛을 투과시키는 금속의 존재로 인해 기존에 사용된 2장의 유리 중 1장을 박막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③ 마그네슘과 이트륨의 혼합 박막은 금속 상태에서는 거울과 같이 작용하여 빛을 차단하지만, 수소 가스와 만나면 투명해지면서 빛의 투과율이 높아진다.

④ 팔라듐이 기체의 흡수와 탈착을 촉진하는 촉매의 역할을 한다는 <보기>의 설명으로 보아, 조광 유리의 팔라듐 박막은 마그네슘과 이트륨의 혼합 박막에 수소 가스가 원활하게 탈착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에 따르면, 팔라듐은 금속의 산화를 방지하므로, 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속 박막의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1부) 4-1. 가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

### [2018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사실 판단이 대상의 관찰 가능한 측면을 기술하여 열거한다면, 가치 판단은 사실이나 사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드러낸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대상은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자체로 항상 가치 있는 것일까? 이 물음은 가치의 성격에 대해 대립적인 두 견해를 불러온다. 가치는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인가,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인가?

가치론이 형성되던 19세기 이전부터 가치가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라는 생각은 일상에 만연했다.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부터 근대의 홉스나 흄, 스피노자 등도 넓게 보면 가치의 주관주의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의 취향은 논의될 수 없다.’라는 라틴어 격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에 들어 가치의 주관주의를 가장 정교하게 주장한 사람은 미국의 철학자 페리이다. 페리는 『가치의 일반 이론』에서 가치를 ‘관심’의 관점에서 정의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부여된다.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 관심이 주어지면 가치를 획득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으로부터 욕구가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욕구로부터 선이 생겨난다.’라고 강조하면서, 대상이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기 전에는 대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주관주의자들에게 있어 ‘x가 가치가 있다.’라는 말은 ‘x는 누구누구에게 가치를 갖는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진다. 주관주의자들은 가치를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관심 실현과 욕구 충족 과정에서 느끼는 사물의 특성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주관주의의 주장은 현실에서 사람들이 겪는 경험을 통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가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입장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체계, 중세의 신학적 사고, 브렌타노, 하르트만 등에서 드러난다. 객관주의자들은 가치의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가치에 대한 인간의 평가’와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평가’라는 인간의 심리적 경험과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상황의 가치’를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인간의 지각이 대상을 파악하는 작용

일 뿐 대상 자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간의 주관적 평가도 가치를 파악하는 과정일 뿐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유명한 객관주의자 중 하나인 셸러는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가치가, 가치를 담고 있는 대상은 물론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빨간 풍선의 빨간색이 풍선의 표면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특성인 빨간색 자체인 것처럼, 가치도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림, 동상, 음식과 같은 담지자\*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성질이라 여긴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셸러는 가치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평가만이 상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치가 이성에 의해 파악되기 힘들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주관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가치를 통찰하고 서열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치 그 자체가 객관적이므로 인간이 그 자체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가치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美)나 선(善) 같은 가치가 어느 사회에서든 보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 여긴다. 이들은 가치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생리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 또는 과거의 개인적 경험이나 삶의 조건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므로 무엇이 가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담지자: 철학 용어로서, 흔히 어떠한 특성이나 내용을 지니고 있는 사물이나 대상을 뜻함.

\* 즉자: 헤겔의 변증법에 사용된 말로, 그 자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이룸.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통해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화제와 관련된 논의를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대비하고 있다
  - ③ 특정 입장을 취했던 학자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소개하고 있다.
  - ④ 대표 학자의 저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여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⑤ 두 가지 입장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하여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① ‘얼굴 없는 천사’의 행위가 실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 판단이라면, ‘얼굴 없는 천사’의 행위를 고귀하다고 평가한 것은 가치 판단이겠군.
- ② 주관주의자의 입장을 따르면 ‘얼굴 없는 천사’가 소아암 환자가 아닌 ‘소년 소녀 가정’을 위해 기부한 것은 자신의 가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겠군.
- ③ 객관주의자의 입장을 따르면 ‘얼굴 없는 천사’의 행위에 대한 ‘A씨’의 평가는 주관적이지만, ‘선행’ 그 자체에 대한 보편적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겠군.
- ④ 페리의 관점에 의하면 이 신문을 읽은 사람들이 ‘얼굴 없는 천사’의 행위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의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셸리의 관점에 의하면 ‘얼굴 없는 천사’가 한 ‘선행’의 가치는 ‘얼굴 없는 천사’라는 담지자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치라 할 수 있겠군.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주관주의자와 객관주의자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보 기 >

OO신문

<얼굴 없는 천사 16년째 선행, 총 4억 원 기부>

- OO동 주민 자치 센터 인근에 5천만 원이 든 종이봉투 놓고 사라져

OO동 동장 A씨에 따르면 ‘얼굴 없는 천사’로 알려진 익명의 기부자가 전화를 걸어, “인근에 성금을 놓아두었으니 소년 소녀 가정을 위해서 써 달라.”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이 기부자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4억여 원에 이르는 성금을 소년 소녀 가정을 위해서 기탁하였다. A씨는 기부자의 선행을 고귀한 행동이라 평가하면서, 가진 것을 나누는 마음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 ① 인간의 심리적 경험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 ② 선한 마음에서 욕구가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욕구로부터 선한 마음이 생겨난다.
- ③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가치 있는 지에 대해 비슷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 ④ 대상은 개인의 감정을 자극하여 관심을 받은 이후에야 특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인간의 평가와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상황의 가치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소요 시간
·
·

[정답] 1 ⑤ 2 ④ 3 ①

[1] ⑤ 이 글은 가치론에서 말하는 '가치'가 주관적인 것인지 객관적인 것인지에 대한 철학자들의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주관주의자의 논리와 객관주의자의 입장을 대조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각 입장의 견해가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결론을 내리거나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가치에 대한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대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① 1문단을 보면, 대상이 지닌 '가치'와 인간의 '평가'의 관련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라는 두 가지 입장을 질문 형식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② 2, 3문단과 4, 5, 6문단을 보면, 주관주의의 입장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철학자들과 객관주의자의 입장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철학자들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두 가지 관점을 대비하면서 '가치'에 대한 상반된 논의를 잘 드러내고 있다.

③ 2문단에서는 가치를 주관적인 것으로 보는 학자들을, 4문단에서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학자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소개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페리를 언급할 때와 5문단에서 셸러를 언급할 때, 해당 학자의 저서와 저서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가치의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2] ④ <보기>는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 행위를 다룬 기사이다. 페리의 관점에 의하면 어떤 대상이든 '관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가치가 부여된다. 이 신문을 읽은 사람들 모두 '얼굴 없는 천사의 행위'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기>의 'A씨'는 '얼굴 없는 천사'의 행위를 고귀한 행동이라 평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페리의 관점에 의하면 '얼굴 없는 천사'의 행위는 적어도 'A씨'에게는 가치가 있는 일이다. 따라서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 따르면, 기사의 내용 중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 판단, 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는

가치 판단에 해당한다.

② 2문단과 3문단에 제시된 주관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얼굴 없는 천사'가 소아암 환자와 소년 소녀 가정 중 누구를 돕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 평가에 따른 선택일 뿐이다. '개인의 취향은 논의될 수 없다.'라는 라틴어 격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주관주의자들은 가치에 대한 주관적 선택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③, ⑤ 5, 6문단에 따르면, 셸러와 같은 객관주의자들은 '얼굴 없는 천사'의 행위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선행)' 속에 담긴 가치를 보편적인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셸러의 경우 특정한 행위가 갖는 가치를 행위의 담지자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① 4문단에 따르면, 객관주의자들은 가치의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평가'라는 심리적 경험을 인간의 지각이 대상을 파악하는 작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관심 실현과 욕구 충족을 중시하는 주관주의자들의 주장과도 관련이 깊다. 즉 주관주의자와 객관주의자 모두 인간의 심리적 경험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선으로부터 욕구가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욕구로부터 선이 생겨난다.'라고 주장한 것은 주관주의자들이다. 5문단과 6문단에 따르면, 객관주의자들은 미와 선 같은 가치를 대상 그 자체가 가진 보편적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과 3문단에 따르면, 주관주의자들은 가치 있는 것에 대한 평가가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4문단과 5문단에 따르면, 객관주의자들은 가치 그 자체가 평가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관심과 가치는 별개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⑤ 주관주의자들은 대상에 대한 인간의 평가를 중시하며 인간의 평가와 대상의 가치를 연결 지으려 하지만, 객관주의자들은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상황의 가치를 인간의 평가와 구분하려 한다.

1부) 4-2. 선거구의 종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2017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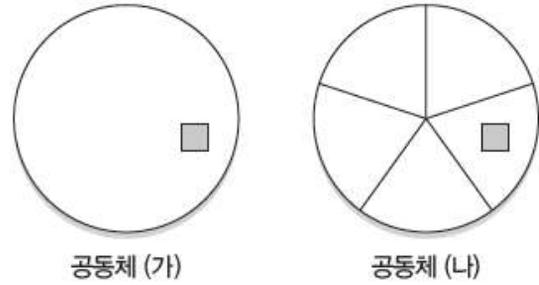
선거구의 종류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의 정수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나 미국 의회 선거처럼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에서부터 이스라엘 의회 선거처럼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전체 의원을 뽑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선거구의 종류는 보통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①소선거구와 여러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②다인 선거구로 나누어지며, 다인 선거구는 2~5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6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거구로 세분되기도 한다. 연구 결과 선거구의 종류는 선거의 결과 및 의원과 유권자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

오른쪽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의 정수가 많아질수록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증가한다. 예컨대 A, B, C 세 정당이 각각 45%, 35%, 20%를 득표했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한다고 가정할 때, 선거구의 종류에 따라 각 정당이 얻게 되는 의석수가 달라진다. 1인 선거구에서는 A 정당이 1석을 가져가게 되어 100%의 의석률을 보이는데 반해, 100인 선거구에서는 45석을 얻어 45%의 의석률을 보이게 된다. 이와 달리 제3당인 C 정당은 1인 선거구에서는 1석도 얻지 못하지만, 100인 선거구에서는 20석을 얻어 20%의 의석률을 보이게 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다인 선거구는 소선거구에 비해 소수 정당이 의석을 얻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정당(득표율)	A 정당 (45% 득표)	B 정당 (35% 득표)	C 정당 (20% 득표)
선거구 종류			
1인 선거구	1석 (100%)	0석 (0%)	0석 (0%)
2인 선거구	1석 (50%)	1석 (50%)	0석
...	...	...	...
100인 선거구	45석 (45%)	35석 (35%)	20석 (20%)

이와 같이 선거구의 종류는 각당이 얻는 의석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선거구의 종류가 미치는 영향은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소선거구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대 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진다. 유권자 또한 자신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선거구일 때는 다

인 선거구와 달리 자신의 선호에 따라 투표하지 않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선거구의 종류가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라고 한다.



■ 11,000명의 소수 집단

< [A] 선거구의 종류는 소수 집단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위 그림과 같이 공동체 (가)와 (나)는 모두 유권자 100,0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1,000명의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는 소수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가)는 전체 공동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최대 득표의 순으로 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다인 선거구인 반면, (나)는 공동체를 유권자의 수가 동일하도록 5개의 선거구로 나누어 각 선거구마다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이다. 이 경우 (가) 지역에서는 89,000명의 다른 유권자들로 인해 소수 집단이 행사하는 표의 영향력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집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나) 지역에서처럼 11,000명의 소수 집단이 모두 한 선거구에 집결되어 있다면, 이 소수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이 경우는 오히려 다인 선거구에 비해 소선거구가 소수 집단의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선거구의 종류에 따라 의원과 유권자의 관계가 달라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다인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은 소선거구에 비해 더 넓은 지역의 많은 유권자에 대해 정치적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반해, 소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은 그보다 좁은 자신의 지역 유권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 이 때문에 다인 선거구일 때에는 의원의 정치적 관심의 범위가 넓어지고, 반대로 소선거구일 때에는 의원의 정치적 관심 범위가 줄어들어 유권자 개개인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강해지는 경

향이 있다. 또한 소선거구는 다인 선거구에 비해 유권자가 자신이 뽑은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거구가 작아질수록 유권자에 대한 의원의 대응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사표: 선거 때에, 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거구를 나누는 다양한 원리를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선거구의 개념을 설명한 후 선거구를 구획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선거구의 종류를 구분한 후 선거구의 종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선거구의 크기에 따른 선거 결과를 분석한 후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선거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선거구를 효과적으로 나누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보다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 ② ㉠에 비해 ㉡에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을 사이에 비례성이 높게 나타난다.
  - ③ ㉠에 비해 ㉡이 소수 정당이 의석을 얻는 데 일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 ④ ㉠에 비해 ㉡에서 선출된 의원이 정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범위가 좁다.
  - ⑤ ㉠은 ㉡보다 유권자가 선출된 의원의 의정 활동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3. [A]를 참고하여 <보기>를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다음의 <표>와 같이 다민족으로 구성된 어느 연방 국가의 주 의회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가 그렇지 않은 주보다 소수 민족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을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의 경우, 다인 선거구제를 채택할 때는 소수 민족인 B족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의 수가 많지 않았지만, 얼마 전 소선거구제로 바뀌고 나서부터 B족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의 수가 증가했다. 이와 달리 '▲▲주'의 경우, B족의 유권자 비율이 '○○주'와 비슷하지만 여전히 다인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주'에 비해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와 ▲▲주의 유권자 비율

	A족	B족	기타
○○주	72%	11%	17%
▲▲주	73%	12%	15%

- ① '○○주'에 비해 '▲▲주'의 경우, B족의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표의 영향력이 A족의 유권자들에 의해 희석될 가능성이 크겠군.
- ② '○○주'가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다인 선거구제로 바뀐다면 B족의 유권자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크겠군.
- ③ '○○주'가 소선거구제로 바뀐 뒤 B족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 수가 늘어난 이유는 소수 집단이 행사할 수 있는 표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로군.
- ④ '○○주'의 경우, 소선거구제가 B족의 유권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아 B족의 유권자들이 일부 선거구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을 가능성이 크겠군.
- ⑤ 만일 '▲▲주'가 소선거구제로 바뀌더라도 B족의 유권자들이 여러 선거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면 B족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 수가 별로 달라지지 않겠군.

4.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 의 사례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A국은 얼마 전까지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만 투표를 하고, 지역구 투표 결과를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여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 대표의 의석을 배분하는 ‘1인 1표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비례 대표 의원을 선출할 때,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 전부터 한 표는 소선거구인 지역구 대표를 선출하고, 다른 한 표는 다인 선거구인 정당에 투표를 하여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를 선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1인 1표제’일 때는 지역구 선거에서 3석, 비례 대표에서 1석을 얻은 소수 정당인 ○○당이 ‘1인 2표제’가 도입된 후, 지역구 선거에서 3석, 정당 투표에서는 총 유효 투표의 13%를 득표하여 8석의 의석을 추가하게 되었다.

- ① 소선거구와 다인 선거구 모두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소선거구와 다인 선거구 모두 유권자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소선거구에서는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기권하는 유권자가 많았고, 다인 선거구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을 선택하는 유권자가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소선거구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유권자가 많았고, 다인 선거구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가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소선거구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유권자가 많았고, 다인 선거구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유권자가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요 시간
·
·

[정답] 1 ㉓ 2 ㉔ 3 ㉓ 4 ㉕

[1] ㉓ 1문단에서 선거구를 종류에 따라 소선거구와 다인 선거구로 구분한 뒤, 2~5문단에서 선거구의 종류가 득표율과 의석률에 미치는 영향,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 소수 집단의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의원과 유권자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선거구의 종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 ㉑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소선거구와 다인 선거구로 분류하고 있을 뿐, 선거구를 나누는 다양한 원리나 각각의 장단점 등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 ㉒ 선거구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선거구의 개념 및 선거구를 구획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㉔ 선거구의 크기에 따른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㉕ 선거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구의 종류가 선거 결과 및 의원과 유권자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만, 선거구별 효과적으로 나누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 ㉔ 5문단의 '다인 선거구일 때에는 의원의 정치적 관심의 범위가 넓어지고, 반대로 소선거구일 때에는 의원의 정치적 관심 범위가 줄어들어'를 통해, ㉑에 비해 ㉔에서 선출된 의원이 정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㉑ 2문단의 '다인 선거구는 소선거구에 비해 소수 정당이 의석을 얻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와 3문단의 '소선거구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대 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진다.'로 볼 때, 일반적으로 소선거구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다인 선거구는 소수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인 선거구보다 소선거구일 때 거대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㉒ 2문단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의 정수가 많아질수록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증가한다.'를 통해, 소선거구에 비해 다인 선거구에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의 비례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㉓ 2문단을 보면,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의 정수가 많아질수록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증가한다. 또한 3문단을 보면, 유권자는 소선거구일 때 다인 선거구와 달리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대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에 비해 다인 선거구가 소수 정당이 의석을 차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㉕ 5문단의 '소선거구는 다인 선거구에 비해 유권자가 자신이 뽑은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를 통해, 유권자는 소선거구일 때 자신이 뽑은 의원의 의정 활동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㉓ ㉑ 주가 다인 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뀐 다음 B쪽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 소수 집단이 행사하는 표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즉 소선거구제이면서 소수 집단이 한 선거구에 밀집되어 있을 경우, 소수 집단이 행사하는 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소수 집단이 행사할 수 있는 표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㉑ '㉑주'와 달리 '▲▲주'에서는 다인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인 A쪽의 유권자들에 의해 소수 집단인 B쪽의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표의 영향력이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

㉒ '㉑주'가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다인 선거구제로 바뀐다면 다른 유권자들의 표가 소수 집단인 B쪽의 유권자들의 표의 영향력을 희석시켜 B쪽의 유권자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시 줄어들게 될 것이다.

㉔ '㉑주'가 다인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뀐 뒤, 소수 집단이 B쪽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의 수가 증가한 점으로 보아, B쪽의 유권자들이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소수 집단의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㉕ 만일 '▲▲주'가 다인 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

제로 바뀌더라도 소수 집단이 한 곳에 집결되어 있어야만 소수 집단 유권자들의 표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즉 B쪽의 유권자들이 여러 선거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면 소선거구제로 바뀌더라도 B쪽의 유권자들의 표의 영향력이 희석되어, B쪽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 수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4]** ⑤ 3문단의 ‘유권자 또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선거구일 때는 다인 선거구와 달리 자신의 선호에 따라 투표하지 않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다.’를 근거로 할 때, <보기>에서 ○○당이 지역구 선거와 달리 정당 투표에서 많은 의석을 얻게 된 이유는 많은 유권자가 소선거구인 지역구 선거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당의 후보자를 선택하고, 다인 선거구인 정당 투표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정당을 선택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①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유권자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소선거구에서 자신의 선호에 따라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② 소선거구인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한다는 내용은 맞지만, 다인 선거구인 정당 투표에서 ○○당이 높은 득표율을 나타낸 것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을 선택한 유권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인 선거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소선거구인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 방지를 위해 기권하는 유권자가 많다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고, <보기>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없다. 또한 다인 선거구인 정당 투표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을 선택하는 유권자가 많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소선거구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하는 유권자가 많고, 다인 선거구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가 많다는 내용은 <보기>의 현상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